

●●●●● 남을 책임하기를 좋아
금주일이 하지 말고 스스로 몸을
살피기에 힘쓰라. 만일 이것을 안다면 영원
히 범죄를 탈하여서 근심이 없을 것이다.
(법구경·쌍요품 159절)

東大新聞

발행인	편집인	편집장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김주일이	김주일이	김주일이	김주일이	김주일이	김주일이
100-715 서울지 중구 필동3가25	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복 경주시 석정동 707(☎ 770-2057)			

제 1203 호

〈주간〉

1964. 1. 1 동국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6년(불기 2540년) 5월 27일 (월요일)

4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

21세기 중심대학으로의 발전 염원

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본부장=한보광·선학)는 21세기 중심대학으로의 발전 염원과 전통국민과 사회각계각층의 관심과 성원을 확인하는 한편 대대적인 기금모금을 위한 행사로 ‘비전! 동국 1백년’후원의 밤을 오는 29일 오후 6시30분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본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한 후원자와 동문, 학부도, 일반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본교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전망을 밝히고 발전계획을 알려내며, 그 구체적인 실천의 기반이 될 재정적 후원 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교90주년기념행사중 하나인 이

행사와 관련해 1백주년사업본부는 오복원 이사장과 송석구 총장 명의로 초청장을 정계 및 경제계 등의 유력인사를 비롯, 조계종단을 포함한 불교단체, 동문, 학부도 등5천여명에게 발송하였으며, 이미 송원주 조계종총무원장, 황병수 총동창회장, 국회의원 최현우 동문 등 많은 인사들이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최창섭 MBC아나운서의 사회로 학교발전프로그램 소개와 영상홍보물이 상영될 1부에 이어 기금 약정행사와 유령 연예인 출연의 축하연으로 꾸민 2부로 진행될 계획이다.



◇애국의 맹세 / ... 지난 24일 치뤄진 출범식을 통해 제4기 한총련이 뜻을 올렸다. 사진은 정명기(전남대 총학생회장)의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김희동 기자)

전한련 대정부투쟁 결의

한약조제시험 무효 주장

93년 한약분쟁이후, 한약조제시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전국한의과대학연합(이하 전한련)에 속한 한의대 학생회(회장=신진호·분2)는 한약조제시험 당일 경산대 3백 50여명과 함께 국가고시 시험장을 점거농성했으나, 대학생과 전경들의 저지로 강제 해산당했으며 이 와중에 5명이 부상을 당하고 1백여명이 연행됐다.

이들은 이어 한약조제시험의 부당성과 한의학이 올바르게 나갈 방향에 대해 전한련측이 주체한 집회 및 선전전을 펼쳤으며 본교도 이날 경주지역 및 안강, 영천등지에서 선전전을 가졌다.

2만 5천여명이 응시한 한약조제시험문제와 관련해 전한련측 상임위원인 신진호 교은 “본별 한의 국가고시와 한약조제 시험은 다르지만 정부는 이를 같은 수준으로 본다”며 “전한련측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한약관련 최종 방침에 대해 “한의학학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며 의료일원화를 위해 한의학을 약하게 흡수 통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회의 반발과 더불어 전국한의과대학 교수회에서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소집하고 서울지역은 비대위측에서, 지방은 각 대학내에서 이번 사태에 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본교 한의대 교수들은 한약조제시험의 부당성과 시험출제를 거부한 본교 출제교수 박선동, 강병수 교수의 고발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현재 무기한농성을 벌이고 있다. 먼저 입장을 살펴보면

△한약조제시험 (19일)은 완전무효 △강병수, 박선동교수를 포함한 한의과 출제교수들의 고발철회 △현안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무기한 농성 등이다.

무기한 농성을 하면서 한의대 박현국 학장은 “시험문제를 예상문제집에서 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국립보건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선동, 강병수 교수에 대해 “본교 교수들이 고발조치 된다면 있어서 지켜보지는 않을것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본교 교수들은 농성중에도 한약 조제시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약전공별로 대책을 강구중이며 한

의학만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속한방병원 교수 15여명도 지난 12일 파업을 시작했으며 33명의 남자 수련의도 19일 한약조제시험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삭발했다.

그러나 응급수련의와 부속한방병원 15여명의 교수들은 병원의 환자들을 진료해야하는 관계로 파업중이지만 회전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합격자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고 한약조제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현재 양쪽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어 감시결과와는 상관없이 한약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윤호군돌기’ 모금운동

서울캠까지 확산 계획

경주캠 이부대학(학장=김영재·경영학)은 지난 4월5일부터 오는 6월까지 교수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윤호군 돌기’모금운동을 한다.

이번 모금운동의 전반적인 현황은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1백20여명 참가 2백70만원이 모금 됐으며, 이를 학교측에 전달했다.

한편, 모금방법은 직원인 경우 이부대 교학과 관계자가 직접방문등의 형식이며, 교수들은 개인이 직접 은행에 입금시키거나 이부대 교학과에 전달하는 형식이다.

이에 교학과 한 관계자는 “이번

모금운동은 교직원들의 호응과 참여가 많았으며 모금운동에 참여한 분들은 모금목에 성명과 금액을 기입하여 김윤호 학생에게 전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교수회에서 1백여만원에 이부대학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교수회의 관계자는 “재운돈이지만 김윤호 학우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선 “서울캠까지 확산해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캠 교무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보 리 수

염주(念珠)

요즘과 같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루 종일 바쁘게는 살아 가지만 저녁때가 되면 무슨일을 하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새벽부터 쏟아지는 텔레비전의 뉴스, 신문의 광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서재에 꽂 들어 찬 책, 해떨어 지기가 무섭게 변책이는 현란한 네온사인.

이 모두가 누구를 위한 일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왜 있어야만 하고 갈수록 더 강한 표현을 써야만 할까? 이러한 것들은 나의 존재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참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아직도 판단이 서질 않는다.

이와같은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는 방법 중 하나로서 불자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생각하는 구슬” 즉 염주가 있다.

염주는 이름 그대로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구슬이며, 나의 존재를 돌이켜 생각게 하는 구슬이다. 이는 본래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생각게 하는 구슬이다. 그냥 마음 속으로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몸과 말과 생각 즉 삼업이 하나가 되어 생각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므로 염주를 할 때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하며 절을 할때 회수를 세기도 한다.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으로 돌기도 한다.

목한자경에서는 염주의 구슬 숫자에 따라서 1080주, 108주, 54주, 42주, 27주, 21주 등이 있으며, 재료에 의한 금, 은, 동, 수정, 목판자, 보리자, 연화자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번뇌를 없애려고 하거든 마땅히 염주를 늘 몸에 지니고 행, 주, 좌, 우에 있어서 항상 진심으로 나무랄, 나무람, 나무숨을 염하라. 그리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며 일체의 장애가 없어지리라”고 하였다.

이러한 염주는 불교에서 시작 되었으며 대승불교권인 중국에서는 당나라시대의 정토 염불자였던 도작(道綽;562-645)스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불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54개를 사용하면서 묵주라고 하며, 힌두교에서는 50개를, 이슬람교, 천도교, 원불교 등에서도 신앙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108염주 뿐만 아니라, 짧은 단주나 손목에 걸고 다니는 합장주, 교통안전등을 기원하는 차량염주 등도 장신구화 되어 유행하고 있다.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이 상실 되었을 때,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고 싶을때, 다른 사람이 미워서 건디기 어려울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염주알을 한알 한알 굴러보이 어때 할까?

한 보 광

불교대 선학과 교수

연영학부 발전기금 기탁

CF출연 수익금 통해 마련

연영영상학부 동문 및 재학생들은 지난 21일 CF출연을 통한 수익금 1억4천9십1만5백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이번 기금은 홍학표(연영 88졸) 채시라(92졸), 김현아(95졸), 유하영(연영4), 홍경인(연영2) 등 5인의 ‘파리바게뜨’ CF출연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CF출연 수익금을 발전기금

으로 기탁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교수동정

▲허정식(정보산업학)=지난 5월 18일 울산대에서 개최된 ‘한국정보시스템학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함.

오늘 6시 수습기자 선발시험 있습니다

개교90주년 기념

동국 사랑의 한 마음을 모읍시다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

바이프로 대학사회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동국은 끝없는 도전으로 최고의 대학을 추구해야하는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세기를 맞아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미래대학으로서의

동국으로 도약하기위해 새롭게 태어난다는

비장한 각오로 미래창조의 열정과 동국발전의

일체감 및 자긍심을 한껏 고취하고자 합니다.

개교 90주년을 맞이해서 동국 100년의 무한 가능성을 확신하며, 이무쪼록

동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국발전기금조성에

동참을 기다립니다.

참사랑 만드는 열린교육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기획광고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밤’ 행사일정

일 시:1996년 5월29일(수) 오후 6시 30분

장 소:힐튼호텔 컨벤션 센터

참석범위:동문, 학부도, 불교계, 교직원, 그리고 동국을 사랑하는 사회인사

회 비:없음

행 사:홍보 영상물 상영
동국1백년 비전 및 플랜 발표
기금약정
축하공연

※행사당일(29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본교 교정에서 행사장행 버스가 운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개교 1백주년사업본부(Tel 260-37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 내용

·불교 종합 병원 건립후원 ‘원불불안’
·등록금 환반 더 내기(동문)
·동국 21세기 발전기금(학부도 및 일반인)
·기타 특정목적 기부금 등



참사람 열리고
2000 동국 백주년

◀ 열린 글터 ▶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십시오.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1번게시판이나 ID: dgress메일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80-3491·2 0561)770-2057

이기주의 풍조 배움의 장소까지

나보다 우리라는 의식개혁 필요

이기주의는 이제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집단이든 개인이든 이기심은 어떠한 어둠도 밝힐 수 없듯이 우리 젊은이들의 이기심은 우리 사회를 이 시대를 황폐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쓰레기들, 학교 어둠을 가나 볼 수 있는 담배꽂조들, 장소를 불문하고 가래를 뱉는 학생들... 너무나 친근한 우리들의 모습을 일 것이다. 특히 그 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가보면 친절하게도 리얼한 삽화까지 그려가며 삼류극장을 방불케 하는 한때(?)의 위를 거리, 불거리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가보면 분명히 사람은 없는데, 지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모습들은 일상생활 주변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생활에 이기의 병폐가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느냐를 극명하게 나타낸다. 현재 우리사회에 반영하고 있는 파소비, 배급주의, 향락주의, 인명경시의 풍조 등의 모든 병리 현상들이 바로 이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의 배움의 장소마저 이러한 현상들

에 충실해 길들여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기적 불감증에 의해 사회 병폐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 들여져 사회 전체의 안녕 보다는 권력과 재력을 지닌자들의 이기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서로의 이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죽으므로 저것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두 막대기가 서로 버티고 섰다가 이쪽이 넘어지면 저쪽이 넘어지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 또한 서로서로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며, 하나도 상호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부정할 수 없는 공동체적 삶이다. 이런 삶속에서 우리는 나에게서 우리로 나의 것에서 우리 것으로의 인식의 전환과 나보다는 우리를 소중히 하는 의식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 평 재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한총련 출범식 또다른 나를 본 계기

아쉬움이 많았던 3일간의 행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 행사가 23일에서 25일에 걸쳐 전북대학교에서 2박3일동안 개최되었다. 나도 호기심과 기대로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출발하는 날, 점심을 늦게 먹느라 출발시간을 지키기 위해 하동대야만 했다. 그러나 서두르느라 서둘렀는데도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선배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서 집합 장소에 갔는데도 대접한 버스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출발예정시간이 2시일에도 불구하고 4시20분이 되어 서야 겨우 출발을 했다.

하지만 행사 일정에 어긋난 시간에 도착한 학교가 우리학교 뿐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더 문제가 되는 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수의 이동이라는 이유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점점 지체되어만 가는 행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낮에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반성했고, 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나 하나 쯤이야 관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두번째 날, 더욱 고조된 분위기에서 드디어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대운동장을 꽉 채운 학생들의 수와 그들의 진지한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고, 화려한 무대와 다채로운 문화공연, 열사들의 결의가 좋았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요즘에도 이처럼 많은수의 학생이 한마음으로 단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았다.

그러나 실망스러웠던 점은 학생들이 큰 일에는 신경을 쓰면서 작은 일에는 소홀히 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쓰레기처리와 화장실 사용이 그 예이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것쯤은 국민학생들도 다 알고 잘 실천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잡자리로 사용했던 종이상자들도 잡에서 깨고 나서는 나물라라고

그냥 방치해 두고, 화장실 사용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사용함을 감안하여 빠른 시간안에 깨끗이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서로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이러한 작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과연 자성인임을 자처하며 앞으로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행사 마지막 날,

뜻밖의 동기들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던 선배들과의 이별에 아쉬워하며 버스에 올랐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과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누구를 위해, 왜 존재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있는 대학생으로서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았던 이번 행사였지만 스스로 나의 삶에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내년 출범식 때에는 좀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조 경 복
(문과대 독어독문학과)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 남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대학인 되어야

어름이 다가올을 알리는듯 햇살이 제법 따갑게 내려 비치는 어느 날오후 상점에 근처 잔디밭 주변에는 이번에 졸업하시는 선배들이 졸업사진 촬영으로 분주해 보였다. 그들을 물끄러미 보노라니 '저들 모두가 확실한 미래 진로 결정이나 취업보장이 되어있을까'라는 생각이 막연히 떠올랐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고3이라는 임시지역에서 벗어났으나 또다시 제2의 취업전쟁이라는 판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즘 한창 상반기 취업·입사행사가 배부되고 있고, 대기업들의 입사전형이나 공무원 시험 공채 발표나 일정들이 나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4학년 취업 선배들을 위해 공직 설명회, 대학생 취업특강, 인·적성검사와 같은 일련 행사가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그나마 4학년 선배들의 관심분야일 뿐 1,2학년내지 상하년 3학년들까지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금의 우리 대학인들은 대부분이 나침반 없는 배처럼 방향 상실한 대학 문화속에서 뚜렷한 목표없이 떠돌아 가고 있는

듯 보인다. 단지 대학 4년을 이룬 대학 문화속에서 그저 그렇게 '가는 세월에 누가 막으랴' '졸여서 노세'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시기인 청춘을 헛날려 버려서는 안된다. 유능하고 정서적인 대학인은 기본에 충실한 젊은이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런 젊은이들은 남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대학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양태를 파악할 줄 아는 젊은이들은 인간을 최고로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따라서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의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정밀성이 인생이나 지성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 있는 젊은이가 될것이다. "진흙속에서 굴러다니지만 연꽃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훨씬 귀한 것"이다.라는 문구가 시사하고 함축하는 의미를 오늘의 대학인들은 음미해보아야 할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첫임을 우리 대학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김 은 지
(상경대 경영경영학과)

감동·가슴저림의 시간들

문화답사 통해 확인한 동기애

조금씩 날이 무더워져 감의일 수업이 짜증나던 어느날, 국어교육과 2학년 우리는 탈출을 시도했다. 바로 목, 금, 토, 일 3박4일동안의 문화답사, 떠나는날 아침 옹기종기 팔정도 주변에 모인 동기들 열굴이

하나같이 싱그럽기만 하였다. 지도교수님이신 해숙이 엄마와 정말 사랑해 마지막은 35명의 동기들이 전북·전남지역의 문화답사(전북 진전 의정서관사, 고창의 미담 서정주 시비, 전남 담양의 면양정, 소쇄원,

동/문/칼/럼

‘예절’이 기본



시대가 많이 변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소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만이 집값이 빠르고 출세 길이 열린다고들 한다. 그래서 학교생활을 할때만 학교유형제가 떨어지다니 그제 성적인 잘 따놓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학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회에서 절실한 사람들은 단순히 학교생활을 잘한 사람만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인 개인 사생활을 펼치는 그러한 무대가 아니기때문에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쳐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교 생활의 성적이나 성실한 생활태도를 매체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사회 생활은 원활한 인간관계와 다양한 생활에서 이겨낼 수 있는자리를 더욱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은 흔히들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말로써 표현을 많이 한다. 직장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실험장이다. 그래서 간혹 기본적인 것들이 그간 간과되어 넘어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래서 상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하고 본인 스스로가 직장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

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한 것이다. 바로 누구든지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예절"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조직에서도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들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직장은 여러대학에서 가정에서 공부하고 자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각기 다른 생활들을 연출한다. 업무를 잘해서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자다. 이는 직장생활을 오래하자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동안 느꼈던 바에 의하면 그렇다. 그러면 왜 후자가 중요한가?

그것은 이렇다. 이 기본적인 '예절'이 몸에 배어 나오는 사람은 지금까지 지켜본바에 따르면 업무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그만큼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을 자신에게 맞추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력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자신에 충실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는자 될수있도록 자신의 관리에 신경을...

이러한 모든것이 자연스레 나오기 위해서 기본적인 과정을 간파해서는 안될것이다.

최 수 영
(르·메이에르(주)·농경제91층)

강진의 영광생가, 다산초당, 해남의 고산유택, 그리고 팔팔마을) 길에 올랐다. 문화유적지에 도착할때마다 조별로 발표수업을 준비하였는데, 뭐라 청할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속에서의 수업은 그야말로 최고의 강의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어디 환상적인 수업뿐이었으랴. 3박4일동안의 뒷풀이 신화 또한 잊을수 가 없다. 한잔 술에 연애고민, 집안고민, 동기문제, 과문제 심지어는 첫키스의 추억까지도 자연스럽게 얘기되어 질 수 있었다. 아람, 잊을수 없는 또 한가지... 망월동묘역, 답사코스선 아니었지만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자 찾았던 곳이었

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수석아... 아직도 비석이 없는 그 민동묘역을 보면서 울던 나의 동기들.

답사지역에서의 감동, 팔팔마을에서의 감탄, 3일동안의 환상의 섬(?)도, '망월도 묘역에서의 가슴저림도 우리 2학년 35명의 동기들과 해수이름마가 함께 했었기에 더욱 값진 것이 아니었나 한다.

돌아와서 '애들이 우리도 가고 싶지않냐'라고 말하는 동기들을 보며 진정 내가 있어 행복했었나 있는 공간은 바로 국어교육과 2학년 우리 동기들 속임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 미 성
(사범대 국어교육과)

있었구요. -물·미 96

■ 법학과에서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해요. -法 93

☑ 수고하셨습니다

■ 예비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면제(민방위)일동

■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청년 붓다들의 한판 어우러짐 '불교도 주간', 힘차게 치루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불장

■ 종길이행! 학생회실 페인트칠 하느라고 수고했어. 너무 멋있다. 풀장 같아서. -종길이행 Kler

■ 「자주공대」한총련 출범식 참가단 여러분! 3박4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8대 자주적 공과대 학생회

■ 동대신문사 한총련 출범식에 다녀오신분들 수고하셨습니다.

■ 정일사장님, 형철부사장님, 나들이, 꼬시미, 만들이, 알리미, 바벤더... Soma를 위해 애쓰신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Soma

■ 손짓사랑회 10, 11기 임원단

and 사랑동이 여러분 하루차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법대 사랑동이가

■ 제11대 총학생회 여러동지들!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선배

☑ 그리고...

■ 종원이님! Rock concert, 멋졌어요. 최민수보다 더이 더멋졌어요. -인·철 나르미

■ 동국대 순수미술 동아리, 그리고...그림, 제9회 소품전 성공리에 끝났다. -유나&진국

■ 토목공학과 김영우학우의 기사시험 합격을 기원하며... -대광동문회

■ 사회90 손영우형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노동애방의 월의 기지 혁명 새·사·연

■ 이과대 BBS개설!

동/악/광/장

telnet sciver2, dongguk, ac, kr→ Login ID: ibrain

■ 대동대 보성동문회 5월31일 금요일 모두 모두 참석바랍니다. -동문회 부회장

■ 모두 동원출연반노라 수고 많았습니다. 언제 한번 정기모임으로情有 느껴봅시다.

■ 함께 만나 웃어봅시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늦은 5시에 불상 앞에서. -부산가야·중앙여고 동문회

■ 제14회 경서대회를 무사히 치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님들·위원장 모두에게 -해로비 4

■ 관경학부 관공리서치센터내 취업구 발족을 축하합니다. -최

■ 경상학부 96학번 총공가는 새내기 이정현! 생일 축하한다!(안녕 해주면 돌아가십시오!) -A공과대 일동

■ C·Y·M의 생일을 축하해~용 -사랑스런 옥이가

■ 우리 '소낙비'의 축구부 '포르러시'생일을 축하축하 합니다. -771

■ 늦었지만 친구 영민이생일(5월23일) 축하해 주세요. -S

■ 전동 1004

■ 1976.5.27이날 국문학과 키크

유선이가 태어난 바로 그 날 또 꿈은 젊은 가슴으로 축하한다. -터프양

■ 항상 좋은 기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문사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자연대의 93

■ 학회지 만든다고 고생하신 선배님들이하 나의 사랑스런 동기들아! 정말 수고했어!! -이방인

■ 동아리 농촌봉사활동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17기 자경

■ 가정교육과 동문 17기 부기장 주수원! 부기장으로 정말 고생 많고 우리 concert 정말 잘 해보셨어요? -17기 자경

■ 중앙선전단, 인문과학부 G반 및 자연과학부 C반 전파전파 수고했다. -총회창

■ 열심히 합시다

■ 문인이 오빠! 멀리 캐나다에서 공부하느라 힘들지? 끝까지 열심히 잘하고 돌아오길... -동생이

■ 사랑하는 동국음악회원 여러분! 결전의 콘서트에 얼마 남지 않

■ 수고하셨습니다

-17기 수연 띄움

■ 경영학부 A반, 동을 17기종

■ R·O·T·C후보생 활동사진전 5월27일에서 31일까지 학군단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대장

■ 택견 4기 5월31일 단합대회 있습니다. 많이 모이세요. 택견 화이팅!! -종환

■ 5월28일 17시30분 백상탑에서 대구 협성·경일 1학기 마지막 동문회 합니다. 많이 모입니다. -대장

■ 28일부터 31일까지 과대항농구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바랍니다. 농구부 화이팅! -숙미랑 윤이가

■ 그리고...

■ 민영아 군대 안가니? 간다고 한적이 언제데 아직 안가고 학교에 남아있니? 빨리 좀 가라. -훈

■ 내가 주막에서 고생을 하

니!! 장우야 너무 사랑해

-日文 문순

목먹골

☑ 축하합니다

■ 성년을 맞아 재원, 상근, 성남정말 축하드립니다. -같은 95 77년 Yul

■ "꿈" 생일 축하해 -佛 Mo

■ 전·통 P4 예비역 신유진의 복학을 축하해요. -편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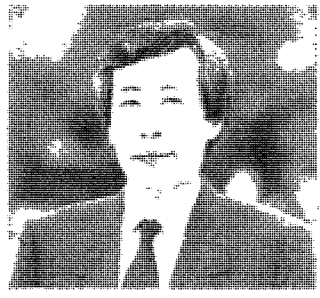
■ 제8 바람소리회원 여러분의 처녀 비행을 참마음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멋진 바람순이, 바람돌이 되어주십시오. -3차원 안드로메다에서

■ 인·협주점(Soma) 성공리에 마친 것. 축하! 축하! 축하! -나들이

■ 성년을 맞은 신방과 학우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길 -신앙 95동

■ 불·미 선배님들 졸업작품전, 정말 축하드려요. 작품이 너무 멋

국회의원들, 철새습성 버리고 정당정치 자각할때



박종훈

문과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면서 활발히 움직여야 할 정치권이 여당의 당선자영입작업에 대한 공방으로 어수선하기만 하다. 개원협상도 아직 착수하지 못한 채 정국이 강경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과연 법정개원일에 국회가 제대로 열리거나 할지 의문스럽다. 과반수의석 더 나아가 상임위의 안정운영을 위한 1백65석의 확보를 겨냥하며 '당선자 빼내기'를 계속해 온 여당과 이에 맞서 여소야대를 고수하려는 야당의 대치는 이제 여당의 과반수확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정치권은 성숙한 모습의 정치를 보여주기에는 커녕 구태의연한 '말어붙이기식' 권력놀음만 연출해와 국민들을 식상케하고 있다.

그동안 여당이 신한국당은 당선자가 스스로 입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계속 과반수이상의 의석확보 추진을 공언해왔다. 물론 현행법상 지역

시사논단 개원정국과 정치권의 과제

구당선자가 당적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당선자를 영입하는 정당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숫자만을 채우려고 그것도 개입도 되기전에 무자비적으로 영입을 하는 것은 신한국당 자체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치권의 혼란을 초래케 한다는 데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러한 영입과정에서 압력이나 허유가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경향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서 정당의 도덕성을 의심케하는 소지가 될 것이다.

한편 야당이 신한국당에 의한 여대야소의 형성은 국민이 선택한 결과를 인위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해왔으며 야당의 이같은 분노에는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신한국당의 당선자영입작업을 불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헌법소원까지 내고 있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회의원은 대표자(representative)이지 단순한 대리인(delegate)이 아니다. 즉 국회의원은 일정한 정당이나 지역권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대표자라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모두를 위해서는 국회

의원은 소속정당이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이 중립적으로 문제시해야 할 것은 당선자가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당을 옮길만한 어떤 필요요건이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적변경자들의 부당성을 논파하면서 여당이 부당한 압력과 회유로서 영입을 강요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어 대처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역시 당적변경 당선자들의 자제이다. 법률적으로는 당적을 변경하는 것은 당선자들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는 데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국회의원당선자가 당적을 바꾸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처럼 빈번하지는 않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 데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해명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할 대표적 상황으로는 기본원칙에 있어서 자신과 소속정당사이의 차이가 극명할 경우를 들 수 있다. '에드먼드 버어크의 말대로 정당이 국가이익을 위해 원칙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때, 원칙상의 차이를 계속 감내하는 것은 정당정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국회의원은 당적을 바꾸는데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정당을 옮길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입장을 지역구주민은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납득할만한 정도로 충분히 해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비록 선출되긴 했지만 당선된 후에는 국민의 대표자로 되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 여당의 당선자영입작업이 개원정국을 파행적으로 끌고가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데서 일차적으로 여당의 책임이 크며 이런 점에서 여당은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의 무리한 영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제까지의 영입작업에 대해서도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선자영입과 그에 따른 정국의 파행성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당정치의 후진성과 국회의원의 자립부족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정당들이 공공으로서 합리적으로 정책대결을 벌이기 보다는 보스중심의 사상적 이익에 지나치게 몰두해왔으며,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기보다는 사사로이 이익에만 급급하여 참새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단순한 '숫자 채워주기'의 역할만 해왔다는 점에서도이다.

각 정당들이 공익을 앞세워 합리적으로 정책대결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기보다는 사사로이 이익에만 급급하여 참새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단순한 '숫자 채워주기'의 역할만 해왔다는 점에서도이다.

정기적인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96년도 임금투쟁 진단

“임금인상 근로조건 향상” 쟁점 부각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노동환경 개선돼야

통, 노조의 작업종지권 확보 등 48개 조항의 단협 개정안을 사측에 전달한 상태이고 월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간 이견 차이를 좁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0일 부산역 광장에서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상공회의소, 노조단일 분배와 단협쟁취 결의대회'가 4백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상공회의소, 노조단일 분배와 단협쟁취 결의대회'가 4백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상공회의소, 노조단일 분배와 단협쟁취 결의대회'가 4백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상공회의소, 노조단일 분배와 단협쟁취 결의대회'가 4백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상공회의소, 노조단일 분배와 단협쟁취 결의대회'가 4백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상공회의소, 노조단일 분배와 단협쟁취 결의대회'가 4백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상공회의소, 노조단일 분배와 단협쟁취 결의대회'가 4백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상공회의소, 노조단일 분배와 단협쟁취 결의대회'가 4백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상공회의소, 노조단일 분배와 단협쟁취 결의대회'가 4백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상공회의소, 노조단일 분배와 단협쟁취 결의대회'가 4백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위축, 무기력화시키는 것이다.

일본에 본사를 두고 시계문자판을 생산하는 경남 마산소재 한국산본은 올초부터 임금체불과 무정당한 강요 등으로 노사간 심각한 마찰을 빚어 "경영악화의 책임은 노주가 져야 한다"는 사측과 "민주노조 세말리기 작전의 일환은 고소고발, 손·배상청구 등을 회사측은 철회해야 한다"는 노조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전 노조간부 10명의 징계발령과 고소고발 및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탄압의 정도는 공공부문노조(한국통신, 서울·부산 지하철 의료보험조합, 철도청 등) 또한 마찬가지이다.

통신주권 수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외치던 한동노동자들을 국가전

북 세력으로 몰아 구속했고, 지하철·철도노동자들의 시민 안전확보 활동과 근로조건 개선활동때에는 "시민의 발을 밟으면 파업을 한다"며 노조민주화 활동을 억누르는 실정이며 서울지하철 35명, 철도청 59명, 한국통신 31명 등 2백50여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실지 해고됐다.

이에 오는 6월2일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개최를 위해 전조협원은 구체적 조직과 준비에 한창이다.

전일자 축소분배, 고용안정, 실질 임금 정책,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철폐, 교사 및 공무원의 단결권확보 등 6대 공동안정 목표를 확정해 김정은이 개혁적 의지로 내세운 '신노사관계'의 기반선 폭로에 공동의지를 모을 예정이다.

최근 제2의 분산정권을 창출했던 한국합성 사태는 지난 13일 목숨을 건 투쟁으로 노조측이 승리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스한시제법 대상자는 복직시킨다. 스한시는 고소고발권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 △본 사책임을 지고 위원장은 흡소와 함께 퇴진한다 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재한 문제는 많이 존재한다.

이 모든 투쟁은 노·사 양측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제는 전체 노동자와 자본가·김영삼정권의 투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정세전환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두번째로 대중선동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 연대투쟁의 선봉에 나서야 하며 끝으로 올레 성과물들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상반기 투쟁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을것이라 예상되지만 국민 모두는 노동자의 선진화에 주목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계속적인 투쟁을 끝까지 결쳐나가야 할것이다.

(송선영 기자)

사설

대화합 이루는 '후원의 밤'을

21세기를 앞두고 대학들이 저마다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시대적 요청과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교육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대학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자각과 그 실천적 노력은 거의 필사적이다. 우리 통국도 바야흐로 도약과 증흥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

학교당국은 이미 규모있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통일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최첨단 과학기술공학단지 중심의대학 타운을 일구겠다는 발원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또 학부제 실시·다전공이수 및 전과기회 확대 등 혁신적인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제도의 개혁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적 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이 원만하게 수월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따라주어야 한다.

이제 대학의 존망은 바로 재정확보와 경영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다. 모든 대학이 재정확보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벌이고 있다. 셋째 대학 총장은 판촉사원이나 다름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학교발전과 경영의 염원, 그 책임이 몇몇 학교당국자에게만 국한된 일이겠는가. 전동국인이 분발하고 책신된 자세로 본연의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일이다.

금번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학풍진작과 발전적 기풍을 세우기 위한 여러행사에 동국인들의 관심과 동참이 한결같지 않았음을 적시할 때, 학교발전을 위한 대화합의 기운이 아직도 증진하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인식에 있어 비판적 입장과 표명과 핵심탄화한 논의 구조, 시책에 대한 엄밀한 검증, 독선과 편견에 대한 문제제기와 견제 등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비생산적인 시비와 율란으로 이어지거나 의변과 방관으로 드러나서는 안된다. 서로를 탓하고 우기다가 대의명분과 실익을 다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합하고 동참하여 이 난국의 다리를 건너는 다리위의 두 염소의 우화에서 지혜를 깨달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뜻에서 오는 29일 열리게 된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행사는 그야말로 동국미래를 열어나가는 대화합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국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결집시켜내는 이번행사가 바로 동국증흥을 위한 대동단결의 나팔을 울리는 정열한 진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동문·학부·교수·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과 동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학교발전을 소망하는 뜻을 모아 성파있는 기금확보의 결과로 맺어줘야 할 것이다. 나부터 먼저 한자투의 촛불을 밝히듯 동국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동국판정

강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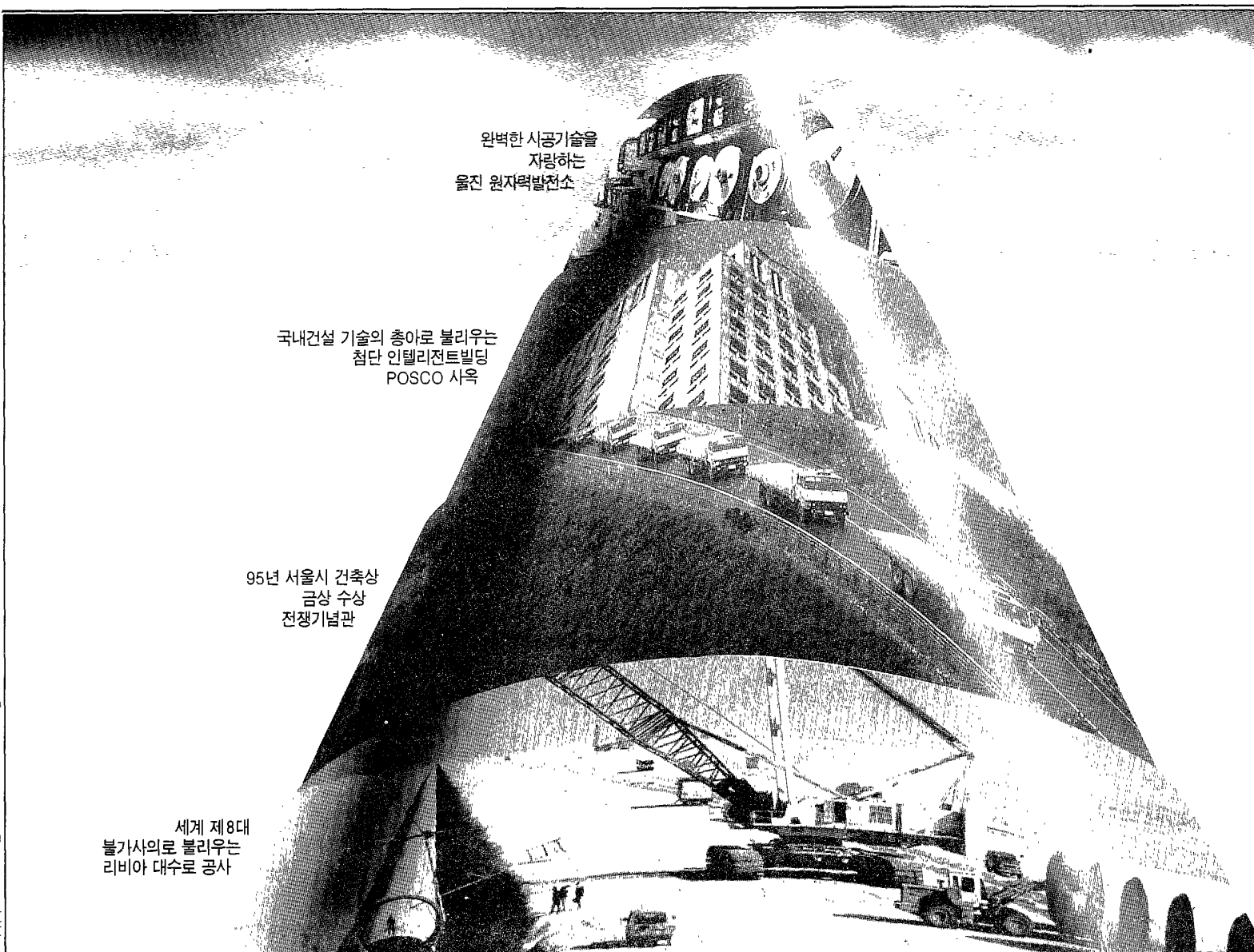


세계 건설역사를 주도해온 동아건설-

세계 건설을 위해 건설명품 창조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아건설!

광복 50년 / 동아 50년 / 지난 50여년을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과 품질로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기간산업의 발전과 건설 명품 창조를 위해 땀흘려온 동아건설 / 동아건설은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리고 세계 건설 역사를 뒤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건설신화 창조, 세계의 건설 명품 창조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동아건설
DONGAH



원래한 시공기술을 자랑하는
울진 원자력발전소

국내건설 기술의 총아로 불리우는
첨단 인텔리전트빌딩
POSCO 사옥

95년 서울시 건축상
금상 수상
전정기념관

세계 제8대
불가사의로 불리우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한약분쟁과 현 한약제시행 사태의 불씨는 두가지 법조항이 제공했다. "약국에서 재래식 한약장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약제-1993년 3월5일) "약사면허 소지자와 약대 재학생은 한약제시행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는 약사법 개정부칙-1994년 7월8일

전자의 조항은 93년 한약분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 조항이 93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되자, 양단체는 삭제조항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며 강력히 대립하기 시작했다.

한의계는 "75년 76년도 국회가 '약사한약취급금지' 촉구결의를, 80년에 수용했으나, 93년에 일정한 공고없이 정부가 삭제했다"며 "약사의 한약조제금지권을 나타내는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 비전문 약사의 한약조제가 가능해지며, 이후 나타나는 국민건강약화의 측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그들은 "한약은 한·양이 문화된 상황에서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반면 약사회는 "삭제조항은 단순히 약사의 형벌적무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며 "삭제 이전에도 약사들에게 한약조제권이 약사들에게 있었다"고 밝히며 91년 헌법판례를 예로 들었다.

93년 3월4일 본고 한의대생의 상경집회가 시발점이 된 한약분쟁은 전국 한의대생 4천여명의 2백일간의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과 한의대 교수 2백여명의 국회집회, 더 나아가 전국수련의 사표제출 사태까지

◇한약분쟁- 엇갈리는 합법화와 전문성

정부의 이중적 법규정으로 극단 대립 초래

너도나도 한약사...분명한 법 적용으로 전문성 유도해야

물고 갔다.

이 사태는 93년 9월 비전문가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합의안을 양단체가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됐으나 당시의 합의안도 양단체의 미묘한 쟁점에대해서는 비껴간 불완전한 체계로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양단체에 치어가며 뚜렷한 고민없이 94년 약사법개정안을 시행, 또다른 분쟁거리를 제공했다.

94년 7월8일 시행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원칙 △한약사제도 신설 △예외적으로 약사에게 한약조제기득권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항 중 분쟁거리가 되고 있는 내용은 "약사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약사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법위가 1천명 대 4만5천명으로 양단체의 견해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는 "약사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개정전에는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따라서 개정이후에도 4만5천명 약사 모두가 최소한의 법적권리(시험응시의 자격)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계는 "약사의 기득권 인정부분은 약사법 시행당시 한약을 응성적으로 다루고 있는 1천여명에게 시험응시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취지에서 나왔다"며, "당시 정부도 소수의 시험응시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후속조치는 "94년 7월을 기준으로 1년이상 한약을 조제한 약사에게만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었으며 이후 조사를 펼쳐 전국 9천2백76개소를 확인했다. (신청자의 92.3% 합격, 1년전과 비교했을때 3배이상 늘어난 수치임)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뒤흔들고, "현행 법규상 약사면허소지자에게 시험응시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19일 2차 한약조제시험서 2만5천명 약사가 응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 법 규정의 미온한 대처가 자칫 1만여명에 육박하는 약사의 한약조제가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자 한의계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약조제약사 시험의 파행적 출제와 응시인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만약 지난 19일 출제된 시험에 의해 다수의 약사가 한약조제권을 갖을 경우, 현

한약사 8천명을 훨씬 넘는 한약조제 약사가 배출되어 한방의 존재위기로까지 비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한약조제약사시험의 출제를 두고 한의사협회와 "약사계가 시험문제를 파행적으로 출제 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약조제약사시험 1백20문항 중 1백1문항(84.16%)이 "약사회 추천 정선 본초화, 정선한약방 제화, 정선한약조제지침문제집에서 나왔다"며 "한 과목당 한 문제집에서 출제하고, 동일하거나 보기만 바꾸는 등 파행적 수법을 썼다"고 말하고 1백20시험문제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했다.

반면 약사회는 "사슴의 땀은 녹음"이라는 공개된 시험문제는 출제도 되지 않았으며, "약대교수와 한의대교수 공조체제에서 선정하는 문제 중 본초학과 한약조제지침서는 합의를 보았고 방제학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며 한의대 교수들의 15일 출제장이탈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약조제시험과 관련하여 파생된 사태는 현재 약화일로로 끌고 있다. 5월11일 전국 한방병원 수련의 연합(전한련의장=김효진·경희대 한의대학생회장) 총과업, 17일 한의과 대학교수사회와 진료거부 결의, 19일 7백명 한의대생의 시험거부 집회, 22일 전국 약대생 연합(전약협)수업거부 등에서 나타나듯 93년이후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본고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12일부터 26명 교수들이(진료를 병행하는) 파업에 들어갔으며 경주, 인천, 동국한방병원 남자수련의 33명이 전원 삭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 역시 15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국한방병원의 구병수교수는 "학생들의 집단유급의 위기까지 몰리는 상황에서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 동정했다"고 밝혔다.

한조시와 관련된 한약분쟁은 이후 한조시의 합격자 발표후 합격자 인원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한의계와 약사계는 자신의 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분쟁중 전문성의 측면은 국민건강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로 전문성 인정여부에 따라, 한약분쟁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약사협회는 "한의대의 한약관련과목 중 주당 강의시간이 38시간인 반면에 약대의 한약관련과목은 주당 1백23시간"이라고 밝히며 "전문적인 소양은 약사에게 오히려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양방은 한방은 기본적 취지부터 다르다"며 "약학계의 한약관련 과목은 화학식으로 추출해서 분석하는 것인 반면 한방의 한약은 성질과 기능을 통해 조제하는 고차적인 측면"이라며 "93년 이전까지 약대내 한약관련 강좌개설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는 한약분쟁중 간과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약사법 개정의 유명무실화가 되면 헌법상의 결정적 공헌자는 정부라는 점이다.

정부의 미온적 법규정에 대처는 한약사 배출이 필요없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사태 발생이후에도 사당발령식 '한약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어쩌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발발된 한약분쟁을 '국민건강 약화' 측면으로 감계하는데 제일 큰 공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누리 기자)

◇성지순례- 5·18의 작위를 찾아

역사의 현장 파헤쳐 골프장 건설 버섯

유가족의 눈물...피해자 보상·명예회복 시급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질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오늘 그 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5·18 민중항쟁 이후 16년이 흘러 5월은 또 다시 찾아왔다. 5·18특별법 제정, 전·노의 구속 이후 맞은 기념일이라 광주 광역시와 5·18 행사준비 위원회가 함께 기념행사를 준비 하는등 처음으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자리였다. 이처럼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오월을 맞은 광주의 표정은 단순한 축제 분위기만은 아니었다.광주시민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특별법 제정은 지난 15년간에 민중들의 끈질긴 투쟁의 성과로 축하하고 기념할 일이지만 이것은 문제해결의 종착점이 아닌 15년간 물려왔던 5·18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의 매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왔다는 광주 시민 김성상(28)씨도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투쟁의 열기가 전국적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열기가 많이 식어 아쉽다. 완전한 정신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전남대에서는 윤관봉씨의 '그간 5·18 투쟁의 평가와 앞으로 과제'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윤씨는 5·18민중항쟁에 참여, 15년간 수배자로 망명생활에 있다가 작년에 귀국해 현재는 민족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이 강연을 통해 윤씨는



'역사에 맡기자면 김정권을 특별법 제정으로 추동 견인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그동안 투쟁의 성과를 평가했다. 또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스내란 및 학살 관련자 감형, 사면 예방 △5·6공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촉구 △전·노 일당 재판 끝내기 전 미국정부에 책임추궁 △5·18 국가 기념일 제정 등을 제시하고 '5·18민중항쟁은 12.12군사반란 이후 5월 27일까지 이루어진 모든 항쟁을 말하며 광주만의 문제로 지역화 시키는 것은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전국화 시켜내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기념행사준비위원회는 각종 행사와 더불어 항쟁 당시 격전지 현장과 유적지를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18일과 19

일 양일에 걸쳐 마련했다.이번 성지순례는 망월동에서 시작됐다. 망월동 입구에는 16년이 흘러도 마르지 않는 유족들의 눈물이 지기고 있었다.일마전에 안치된 노수석 열사를 비롯해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망월동. 순례단의 발길은 멈췄다. 순례단은 다음날 가장 먼저 공수부대가 파견됐던 전남대학교를 비롯해 최초의 총기사용화생이 있었던 계림동 사거리,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구 공용 터미널, 왜곡보도로 시민들에 의해 전소됐던 구 MBC 건물, 항쟁 지도부 상황실이었던 도청과 시체 안치실이었던 상무관, 시민 총기 사용교육장이었던 YMCA, 항쟁 중 모든 시위가 연결되었던 금남로와 군사훈련을 하던 광주광명동을 거치는 동안 당시 상황을

떠올릴 수 있었다.

순례지중 마지막 장소는 당시 영장과 발정으로 사용됐던 상무대였다. 5개월간 이곳에 수감돼 있었던 5·18민중항쟁 동지회 감사 김공휴(37)씨를 만났다. '민주화가 무엇인지 알아서 싸운 것이 아니었다. 단지 살기 위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들고 도청을 지켰을 뿐이었다'고 말문을 연 김씨는 아침에 멀쩡하게 불려나가 저녁이면 들것에 틀러 들어오고 열매가 훨씬 넘어가는 우물안고 다녔다. 손가락도 안고 끌고다니는 식사가 일상이었단 수감생활을 '개·돼지만도 못한 생활'로 표현했다. '지금도 그때 일로 인해 안정된 기반을 잡아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다.당시 고문으로 인정한 내외목단 살인, 강간, 국가기관 등으로 여섯가지나 된다. 난 국가기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는 그의 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또 김씨는 '국가적인 행사라고 말은 하면서 5·6공 시절과 같은 진압에 기념행사가 전국적인 보도도 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보면 차라리 망월동에 뒹굴면 이런꼴 보지 않고 편치 않았을'을 연대하며 5·18 16주년을 맞은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순례지로 상무대를 방문하고 나오는 순례단을 뒤로 바로 옆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중장비의 소리가 들리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5·18민중항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다.우리에게는 여전히 청산해야할 군사정권의 인적 잔재, 경제구조, 법·제도적인 측면과 5·6공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금남로에 남아있는 민중들의 함성과 피내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양지연 기자)

동악로

어머니의 눈물



'놈들은 전·노 같았을게 좋겠다' 한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하나도 인종아. 그래 봤자 고급으로 일하고 매킨고 목욕시키는다. 법정에서 그놈들 뻔뻔한 꼴 보면 울화가 치밀어서... 아들의 묘지 앞에서 하안소복을 차려입은 김영애씨는 아직까지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말끝을 잊지 못한다.

'학생들이 가끔 이런 농담을 해. 전씨가 사형났다고 빼빼가 왔다는 거여. 아직 진상규명이 안되있어' 얼마전 집회때 무릎을 다쳐 거동이 불편한 김씨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린다. '어머니 걱정하시는 건 알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갈수가 없네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도청으로 향해 가는 모습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 사망한 아들을 찾아 화병으로 4년뒤에 사망한 아버지를 제외하고 현재 어머니와 형, 여동생은 '5·18유족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병규,동국대학교 1학고, 5·18기념일을 맞은 망월동, 김씨앞에 있는 묘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다. 고 박병규 선배 박원을 위해 노력해온 '청산과 계승을 위한 동악로의 모임' 회원 이승민(사회과 학계열1)군은 '민주화를 위해 목숨바친 아들의 명예회복과 5·18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마음아파하는 어머니께 명예졸업장마저 없는 서러움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날까라는 말과 함께 '지난 89년 한 선배가 박병규 선배 이야기를 꺼낸후 흐지부지 됐던 명예졸업장을 이번에는 꼭 안겨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속쓰러운 미소를 짓는다.

'동국대학교 학생 맞재? 아가 그 학교 다녔어. 지는 배웠을게 민주화를 위해 싸웠었지, 목숨을 걸고 싸운거여. 다른 무렵에는 다 명예졸업장이 있는디...'

5·18 기념일을 맞아 갖가지 화환과 추모 메세지가 놓여있는 아들의 무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아쉬움의 눈물이 맺힌다. (양지연 기자)

SAMA SHURE The Sound of The Professionals... Worldwide

당신의 소중한 공연 -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음악인이 애용하는 SHURE, SHURE는 확실한 선택입니다.

SM58

전문 공연자들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마이크. 기온차에서도 영로운 사운드와 그 특은함! Rock, R&B, Pop 어느장르나 재즈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이크

BETA58A

전문적인 보컬용 마이크 보컬리스트와 세계순회 공연전문가들TopChoice, Stage/Handling noise를 극소화.

SM57

공연무대나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지런히 일하는 마이크" 깨끗하고 질다들어진 음질재생 능력, 드럼, 피쿠션, Instrument amplifier miking을 위한 표준모델.

BETA57A

어쿠스틱악기, 전자악기를 위한 마이크

SM87, BETA87

스튜디오용의 콘덴서 마이크의 특징과 거절은 이외용 마이크의 내구성을 모두 갖춘 라이브공연을 위한 최상의 선택

SM10A

음악일이 자유로워야하는 드러머나 키보드리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마이크.

SM98A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악기를 소용 마이크.악세서리를 갖춘 완벽한 시스템의 제공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드럼/호른 등 어쿠스틱 악기에 매우 적합함.

SHURE

엠이진지주식회사 서울·강남구 삼성동145-18 KWTC P.O. BOX 110 TEL: (02)565-8641 FAX: (02)565-8640

종교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현 사회에는 여러가지 종교가 존재하고, 이들 종교 간에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에 지난 17일 열린 불교학술세미나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의 상황을 불교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편집자)



권기종교수(불교학)

불기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본교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 불교학)주최로 불교학술 세미나가 지난 17일 동국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열렸다.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라는 주제로 발제 강연에 이어 네명의 교수는 주제발표를 했고, 여기에 다시 열면 토론이 뒤이었다. 송석구총장을 비롯하여 4백여명의 동참으로 성황을 이룬 세미나를 소개한다. 먼저 주제 발제강연에서 권기종 교수는 "한 국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

가사회가 종교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아니면 특정종교만을 선택하는 경향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다종교적 현상을 갖기 마련이라하여, 하나의 통치권 안에서 여러 종교가 자유롭게 그 종교적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다양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각기 종교가 가지는 자기만의 독특한 진리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교인도 그가 어떤 종교를 신봉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신념체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종교 현상은 종교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진리성 주장과 신념의 체계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것이 대립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그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각 종교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기독교와 카톨릭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지에 관하여 불교적 입장에서 제시했다.

그에 대한 예로서 기독교와 불교의 관계를 내세워 최근에 일어난 몇가지 사례들을 밝혔다. 이것은 도저히 종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선교라는 이름아래 행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가운데 휴거를 주장하는 말세론적 종말론에 관한 유인물과 녹음 테이프가 불교사찰과 신령단체에 뿌려졌다는 것을 비롯해 사찰내 국보급의 문화 방화사건들을 제시했다. 한편, 기독교의 불교 공격은 불교를 미신이라고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 예수는 신이요, 석가는 인간이라는 주장 등을 밝혔다. 이와 반면에 불교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는, 물론 같은 진리체계를 갖고 있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불교학술 세미나-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

불교인, 순교자적 자세로 불교의 역할 증대시켜야



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약마나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같은 발제를 통해서 모든 종교는 이해와 관용이라는 측면에서 서로의 특징을 인정하고 그 독립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둘째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는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본 타종교와의 관계



김경태교수(불교학)

이어 두번째로 주제발표에서 김경태(불교학)교수는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본 타종교와의 관계'라는 주제하에 불교역사에 있어서 일찍이 다른 종교를 어떻게 대하고 또 다른 종교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왔는가를 한국이라는 역사 테두리 안에서 간략하게 살폈다.

우리나라에 불교의 공식적인 전래(공전기년)를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보다 훨씬 앞선 1세기쯤 전의 일로 보았는데 그러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 "단군설화에 보면 그러한 하늘 남을 환인(천제석)이라 하였고, 그 아들을 환웅이라 일컫는 것에

두었다. 그리하여 불교는 종래 신성시하던 산의 신명을 산왕대신, 집집마다의 주신을 조왕대신, 생명을 점지한다고 믿었던 별(영성)을 북두대성, 칠원성군 등으로 각각 자리매김해서 부처님의 도량내에 안치하여 산왕단·조왕단·칠성단·정법을 수호하는 권속이 되게하였다"고 한다.

그와 같이 자연신 숭배의 신앙현상을 자비와 지혜의 종교성으로 풀어 안에서 조금도 이질감이 없이 민족정서에 조화되고 동화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가 끝날무렵 고구려말에 개소문이라는 실권자가 권력의 힘으로 도교를 수입해옴으로써 비로소 우러려져 역사에 종교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종교적 갈등이나 마찰이리기 보다는 도교를 받아들인 정치권력에 의하여 불교가 압박을 받게 된 사실이었던 것이다. 이 후에도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불교는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드러냈다.

정부정책의 종교편향성

시비와 불교의 대응

세번째로 최창술(선학)교수는 '정부정책의 종교편향성 시비와 불교의 대응'이란 주제로서 다양한 종교의 의미를 논했다. 서구에서는 신의 명령에 대한 불복의 뜻으로만 죄를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비교 종교학적인 입장에서는 신성한 질서를 이탈하는 일세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불교는 최종적이고 극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불교의 근본진리를 파악함으로써 피안에 도달한 궁극적인 지고의 경지를 중으로 표현했고, 그러한 최고의 사실을 보여주면서 중생들을 모두 피안을 향해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말로 표현하였는데 '연기론적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현정부에서의 편향을 내세우며

인육의 한계를 역설했다.

그에 이어 한 통치권자나 위정자들의 망언이나 가벼운 행위가 단연코 일과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상설 교단 외호기구의 설치가 급선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고급인력 양성이 급선무라고 본다.



최창술교수(선학)

가족구성원간의 종교적 불화와 그 해결

네번째로 정병조교수는 '가족 구성원간의 종교적 불화와 그 해결'이란 주제로 한국인의 종교수용태도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해방이후 현재까지 한국기독교의 비약적 발전은, 바로 이와 같은 현세이익의 강조 때문이었다고 보았으며, 한국인은 그가 기독교를 믿건, 불교를 믿건간에 그 심성의 발바닥에는 기복성이 잠재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의 문제는 한국인의 기복성이 이기적일 뿐 아니라 현세중심적이라는 면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한 제시로서 가족들간의 종교적 갈등, 무엇이 원인인지를 종교갈등의 본질적인 문제는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부재'라고 보았다. 그러한 문제들은 종교성적자들에 대한 상호 종교의 의형성 비교를 문제점으로 내세웠으며 또한 상호종교의

진리성에 대한 우월성 논쟁을 제시했다. 가족 구성원들의 종교갈등이 대부분 관념적이라 하였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간의 종교적 대화가 필수적이라 하였다. 끝

종교다원사회에서의 한국 불교의 역할

으로 목정배(불교학)교수는 '종교다원사회에서의 한국불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현대 사회처럼 언어의 성장이 만개한 시대는 없었다며 언어가 표현할 때는 그 의미가 명확하여야 하고, 또한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여실하게 개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다원주의(Pluralism)라는 것은 일원론, 이원론보다 뜻이 광범위하게 내포된 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가 종교를 이해하려는 종교학자에게 발언된 것도 기이한 일이라 보았다. 불교적 원리는 하나이면서 모두이다. 즉 화합의 원리이며 육상원용의 무진연기에서 우주의 모든 법제는 총체적인 모습임과 동시에



정병조 교수(국민윤리학)

에 개체적 성질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원이란 많은 불교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대해 원효의 '지법요기'를 통해 나를 일원으로 보고 남을 다원으로 보면서 깊이 살펴보



목정배교수(불교학)

며 어떤 해답을 얻고자 했다. 원효는 자아의 행위가 최상의 것이고, 남을 절대적으로 비하하는 오늘날에 와서는 음미할 과제라고 했다.

다원의 세계와 일원의 세계를 별리로 세워보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 상황으로 응섭하여 자신보다 타인의 행복을 해시하려는 교세대비적 일심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원이란 가면을 쓰고서 일원을 속이는 연극은 막을 내려야 하고, 일원의 참 마음으로 다원의 환심을 받아들이는 자관적 비시행(慈悲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다섯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네 명의 토론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또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서윤길(불교대학장)교수는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 궁극적인 진리라는 것은, 결코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닌 이상 융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궁극적으로 융합되는 최선의 종교적 화합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자신의 화합과 관용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어 홍사성(불교TV 편성제작국)국장은 "그 자신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기독교의 배타성과 비관용성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전면에 퍼져 있다는 것을 먼저 불교인들은 잘 알고 임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 화합의 방법론을 정립하는데 있어, 회피나 목인의 분위기를 내세우는 결코 아니됨"을 아울러 지적했다.

다음 박선영(교육학과)교수는 "조선후기 개항시 불교와 서양 종교 사이의 접촉과정을 김경태교수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산중 불교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약해진 불교가 그 어려운 상태에서라도 강대국 서양 종교와의 관계에서 능동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므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암시를 얻고자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러한 토론을 바탕으로 최후에 토론에 나선 이봉춘(불교학과)교수는 "결국 불교도 힘을 키워야 하고 나아가 비법·탈법·불법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대응을 보여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늘 보살의 자비에 입각한 대응이어야지 나팔의 원만한 공격성에 입각한 전쟁이어서는 아니됨을 전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앞날은 현상대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교의 앞날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모든 불교인들의 피와 땀이 새로운 차원에서 쏟아 부어져야 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불교인들이 순교자적 자세로 불교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불교의 진로일 따름이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모아진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부)

원룸 + 빌라 + 호텔 + 오피스 = 정품빌라텔

멀티라이프의 신세대 곧, 슈퍼맨생활이 되어야 한다 21세기는 신세대인 우리들이 일하고, 꿈을 펼치는 시대다

차세대에서 뜨려면 외국어실력의 탁월함, 컴퓨터가 기본생활의 도구....

해야할것이 많다. 때문에 시간도 체력도 전략적으로 계획관리 해야한다

남은 대학생활과 취업을 목표로하고 있는 기업도 서울 도심에있으니까 생활이 편리한주거공간이 필요하다. 가구, 전자제품, 모든편의시설이 공간활용과 품격높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하고 토지지분도 많은 투자성도 높은 원룸빌라텔을 부모님께서 구입해주셨다 위치도 팔내주는 곳이다 남산의 맑고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민속공원이 있는 필동. 학교에서 5분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정품빌라텔이 등하교시간을 하루에 2시간씩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야! 그 시간을 나는 학과공부와 진로에 필요한 공부로 할 수 있어 자신감과 여유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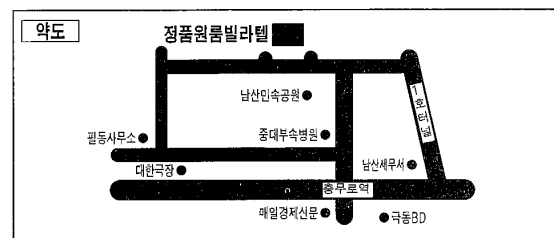


첨단주거문화창조와 양심을 고집하는 기업
(주)정품리사이클링건설

정품원룸빌라텔공급개시

동명	공급금액	임대금액	세대수	전용면적	토지지분	비고
12 ²⁵	89,985	49,000	2	30 ²⁴	19 ⁷⁰	단위 전
	103,230	55,000	2	"	"	면적 m ²
13 ⁷⁰	100,795	55,000	1	33 ⁸⁰	22 ³⁴	
	115,631	62,000	1	"	"	
16 ⁰³	117,830	64,000	4	39 ⁸⁰	25 ⁸⁰	
	135,465	72,000	4	"	"	
17 ⁰⁵	125,475	68,000	1	42 ¹²	27 ⁴³	
	143,943	77,000	1	"	"	
42 ⁵⁴	358,938	191,000	2	105 ⁷⁰	68 ⁸⁵	

- 위 치: 서울시 중구 필동2가 84-9호
- 접수방법: 선착순
- 구비서류: 계약금, 주민등록증, 인장
- 입주일자: 현재입주가가능
- 융자금액: 분양가의 50%까지 가능 (융자금만으로도 구입가능)
- ※주변토지 평당단가 900만원이상 (각 가구당 토지지분 분양면적의 2/3이상 등기됨)
- 취득세, 등록세감면: 전용면적 40m² 미만 100%감면 40m²~60m²미만 50%감면



분양문의
278-7458, 278-8470

◇ 본사 주최 제34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결과



◇ 입선자 명단

시 장원: '하늘' 남해정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3)
우수 1석: '하늘' 김민정 (부평여자고등학교 3)
우수 2석: '하늘' 김예진 (계남고등학교 2)
가작 1석: '새' 김희영 (안산장서고등학교 2)
가작 2석: '새' 최은민 (영광여자고등학교 1)

수필

장원: '눈썹' 이화진 (서산여자고등학교 2)
우수 1석: '가장 미웠던 나' 박문정 (영동고등학교 3)
우수 2석: '가장 미웠던 나' 장진자 (대전여자고등학교 3)
가작 1석: '가장 미웠던 나' 김신비 (안양예술고등학교 1)
가작 2석: '가장 미웠던 나' 김은 (사리남여자고등학교 3)

소설

우수 1석: '사진 한 장' 박상희 (안양예술고등학교 3)
우수 2석: '사진 한 장' 김보경 (북여자고등학교 3)
가작 1석: '사진 한 장' 공지혜 (영광여자고등학교 2)
가작 2석: '사진 한 장' 정은진 (경여자고등학교 3)

◇ 심사위원

시: 김신현 (문학평론가·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성 (시인·안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소열 (시인·사대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수필: 김신현 (문학평론가·사대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이준성 (법정대 법학과 교수)
소설: 홍기상 (문학평론가·문대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한용환 (소설가·사대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심사평

시

백일장 출품작은 산뜻한 감수성과 재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 한편 시간 간에 한정된 시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 34회 시 작품들도 이러한 장단점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작품들은 정감의 처리와 시적 사유 등에서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 중에서 심사자들의 주목을 끈 것들이 최은민의 '새', 김희영의 '새', 김희영의 '하늘', 김민정의 '하늘', 남해정의 '하늘'이었다.

최은민의 작품은 시적 집요성이 돋보였으나, 정리가 부족하여 가작 2석으로 했고, 김희영의 작품은 참신성이 돋보였으나, 기교에 호를 열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작 1석으로 정했다. 김희영의 작품은 정돈된 상상력을 높이 평가하여 우수 2석으로 했고, 김민정의 작품은 규범미를 높이 평가하여 우수 1석으로 정했다. 남해정의 작품은 모국어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때론 깊은 상상력이 돋보여 높이 평가되어 심사자 전원 일치로 장원으로 결정했다.

김신현 (문학평론가·인문대 국문학과 교수)
최소열 (시인·사대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수필

제목인 '가장 미웠던 나'와 '눈썹'은 내면과 외면, 실리와 외모라는 대립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들은 진부하기 이를데 없어 무척 실망스러웠다. 아마도 이는 경쟁방이나 독자들의 부패, 아니면 정국적으로 문화적 상상력이 결여된 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좀더 학생들의 관찰력과 성찰력, 나아가 현실화에 대한 치열한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

대부분 작품들 보면서 외국어부 문제가 남용되고 있으며 문제나 주제나 정서 범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서산고교(2) 이화진의 '눈썹'은 시종 일관 독자들을 이끌어들이는 탄탄한 구성력과 깨끗한 수어부 문장의 활용, 위

어른 심리묘사를 통해 '잘 다룬' 것인 '눈썹'과 '태어난 그대로의 눈썹'이라는 '일탈'과 '정식'의 내면 모습을 소년 특유의 세계에서 포착한 점이 돋보여 장원으로 뽑혔다.

영동고교(3) 박문정의 '가장 미웠던 나'는 워크맨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님의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허락만 받고 싶은 허락에 불과하다는 아주 평범한 사실을 끔찍하고 있어 우수 1석으로 뽑혔다. 대전고교(3) 장진자의 '가장 미웠던 나'는 아버지에 대해 예초와 애초에 교차하는 내면심리를 잘 묘사하여 눈에 띄었으나 비문(가령 '수동태' '파동태' 명사형 문장의 남용)이 많고 감수성의 과장된 문장이 감점요인이 되어 우수 2석, 안양고교(1) 김신비의 '가장 미웠던 나'는 순수한 소녀의 반성하는 내면이 버섯향기처럼 싱그러워 가작 1석, 사리남·김은의 '질문들이 활보하는'는 잔잔하고 어디서 본 내용(예: 사랑의 작은 선물)감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진지하고 솔직하여 가작 2석으로 뽑혔다.

고재석 (문학평론가·사대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이준성 (법정대 법학과 교수)

소설을 문장으로 제시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은 소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방식이다. 그리고 이야기란 언어적 흥미있게 사건이 발달하고 발전한 끝에 결말하게 해결에 이르게 하는 실리적 구조를 완성시켜 준다. 따라서 소설을 쓰는 이에게 진실의 요청되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문장이 무한한 작품들을 없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독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많은 것이다. 문장을 정화하는 힘이 적은 문장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적은 문장이다. 좀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데 많이 써보기를 권유한다.

홍기상 (문학평론가·문대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한용환 (소설가·사대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소설을 문장으로 제시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은 소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방식이다. 그리고 이야기란 언어적 흥미있게 사건이 발달하고 발전한 끝에 결말하게 해결에 이르게 하는 실리적 구조를 완성시켜 준다. 따라서 소설을 쓰는 이에게 진실의 요청되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문장이 무한한 작품들을 없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독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많은 것이다. 문장을 정화하는 힘이 적은 문장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적은 문장이다. 좀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데 많이 써보기를 권유한다.

홍기상 (문학평론가·문대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한용환 (소설가·사대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소설을 문장으로 제시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은 소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방식이다. 그리고 이야기란 언어적 흥미있게 사건이 발달하고 발전한 끝에 결말하게 해결에 이르게 하는 실리적 구조를 완성시켜 준다. 따라서 소설을 쓰는 이에게 진실의 요청되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문장이 무한한 작품들을 없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독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많은 것이다. 문장을 정화하는 힘이 적은 문장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적은 문장이다. 좀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데 많이 써보기를 권유한다.

홍기상 (문학평론가·문대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한용환 (소설가·사대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본교 개교 90주년 기념 본지 창간 46주년 기념

오월과 아카시아꽃냄새 그리고 젊은 문학의 잔치

소설 우수 1석 - 사진 한 장



박상희 (안양예술고등학교 3)

소설: '사진 한 장' 박상희 (안양예술고등학교 3)
우수 1석: '가장 미웠던 나' 박문정 (영동고등학교 3)
우수 2석: '가장 미웠던 나' 장진자 (대전여자고등학교 3)
가작 1석: '가장 미웠던 나' 김신비 (안양예술고등학교 1)
가작 2석: '가장 미웠던 나' 김은 (사리남여자고등학교 3)

“오늘은... 아무일 없었어?”

엄마가 현관을 들어서며 늘 묻는 말이다. 나는 비둘기는 엄마를 부축하고자 한 기와 주름을 세어보았다. 동생의 사고 이후로 생기기 시작한 주름이었다. 엄마는 동생 혼자 방으로 발을 향했다. 혼자서는 자고 있었다. 발무늬가 그려진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쓴 채였다. 아마도 발뺌 주저앉아 하루종일 불과 씨름해서 똥통 부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이불을 내려 혼자

의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불빛이 멀찌가 그려져버린 동생의 얼굴은 눈을 감아서인지 동화책에 나오는 괴물같은 모습으로 비쳐졌다. 겨우 숨을 쉴 수 있을만큼의 크기인 콧구멍 두개만을 남기고 불에 녹은 코와 볼나를 빼놓은 노인처럼 얼굴은 조글조글 오므라져 있었다. 엄마 눈에는 금세 물기가 고였다. 맹정성으로는 혼자를

글썸머리를 날리며 자전거를 탈때면

동네 여자아이들이 이 배꼽이 대문을 열고

흔들 보기 일쑤였다.

뭇보셨다면서 장사를 마치고 날마다 술을 먹고 가는 일이었다.

“오늘 가게에 다리 아픈 사람이 왔는데... 써비스 많이 줬다”

엄마는 조그만 한식집을 하셨다. 내가 국민학교 입학하던 해에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시작한 일이었다. 동생 혼자, 혼자 5살, 3살 때였다.

나나 동생들은 구멍없이 자랐다. 특히, 혼재는 성적이 좋아서 어디서건 인기를 독차지했다. 글썸머리를 날리며 자전거를 탈 때면 동네 여자아이들이 배꼽이 대문을 열고 흔들 보기 일쑤였다. 종그런 대문

을 받으면 반짝거리고, 뽀얀 피부는 여자인 나보다도 매끄러웠다. 그의 눈에서 충기가 사라지고 보일만 피부가 반짝거릴 때, 집집마다 변한 것은 6년전이었다. 혼자 집에 있던 그는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불을 켰다. 손식간이었다. 일종의 불행한 제미로만 가득차 있던 그의 집에 자갈이 깔린 것은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시간과 같았다. 혼자에게서 웃음이 사라지자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웃음도 점차 사라졌다. 엄마한테는 그는 가솔을 놀고 돌아갔다. 집에 있던 나보다도 놀고 다녔다. 돌아올 때는 몸이 반쯤으로 말라있었고, 손에 비디오는 걸리지 않았다. 동생을 봤을 때 가슴 한켠에서 울적 솟아오르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말았다.

“왜 돌아오지? 죽어버리지, 왜?”

그는 눈을 알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는 불렀었다.

“혼술이만 귀여워하고 살게?”

내발을 풀리치고 그는 세계 문을 닫았다. 혼재와 혼재는 어릴 때 사이가 좋았다. 둘 다 기질처럼 이쁘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아이였다. 혼재의 사고가 있을 후로 사람들은 혼재를 꺼려했다. 앞에서선 생글생글 웃었지만 그의 손이 닿기라도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뒷걸음질을 쳤다. 송충이처럼 돌아오는 손가락이었다.

“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린 혼재의 조그만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이다. 혼재는 동생을 전부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집에 있어왔고 밟기도 하고 머리를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웃음대신 집을 메운 것은 혼재의 어리광 호르는 울음이었다. 누나인 나도 혼재와의 접촉이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동생들을 데리고 영화극장을 갔을 때였다. 오동통한 혼재의 손을 꼭 잡고 길을 유난히 빨리갔다. 혼재는 검은 구구구구자를 꼭 붙잡고 조종하던 우리 뒤를 따랐다. 사람들이 시선이 자주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았다. 햇살은 밝게만 느껴졌다. 그는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왜 저대바, 이 새끼야?”

길거리 전화박스 앞에 줄을 서 있던 젊은 사내가 놀란 눈을 떴다. 어이없이 하는



표정이었다. 사내는 동생을 본 것이었다. 혼재는 계속 욕을 내뿜었다. 사내 동생의 등에 대고 사납게 말을 했다.

“병신, 팔팔하네, 도둑 제 밍지리네.”

그러나, 동생은 계속 베풀어 갔다. 얼마 친구가 전화를 했다. 송충이가 사내로 새어오는 아줌마의 말이 귓속에서 뱅뱅 맴돌았다.

“혼재네서, 거지애들이랑 다니는 거 아니냐?”

아줌마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고장들이 오늘 우리집 담을 넘어 와서는... 새상에 혼재가 시켰다지 뭐냐, 우리집 밍지리고.”

속살

바닥에

매진

가을의

파편들이

힘없이

땅글었다.

...

존재의

발바닥에

우리가

박히고

그

사이로

...

검붉은

피가

줄줄

흘러나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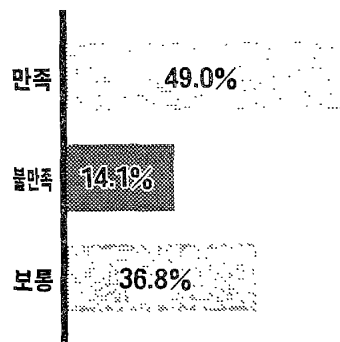
학생생활연구소(소장=심익선·행정학)는 본교가 도입한 각종 신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3월18일부터 4월12일까지 진행된 본 조사는 대학원, 학부제에 대한 인식, 전공 선택, 복수전공과 전과제도, 계절학기, 학점취득제도, 기타 학사제도 등을 층화임의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해 각학과, 학부별로 20%씩 무작위 추출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학생생활연구소-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신입생 설문조사 분석

학부제·복수전공·계절학기 대체로 긍정 학업지도교수제 등 학사지도체제 강화되어야

대학원: 좋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훌륭한 교수진, 본교입학에 대해서 만족 신입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장래의 직업준비를 위해서 48.6%, 학문과 진리탐구를 위해 31.9%,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7.7%, 인격도야를 위해 6.6%, 남들이 진학하니까 4.3%로 나타나 취업에 관한 높은 관심

본교입학에 대한 만족도



도를 볼 수 있다. 특히 공과대학(60.0%), 경상대학(58.8%), 사회과학대학(51.5%)에서는 장래의 직업준비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좋은 대학의 조건에 대해서는 훌륭한 교수진 28.9%, 역사와 전통 21.1%, 우수한 학생 19.2%, 좋은 학교시설 12.6%, 학생들의 생활열 10.1%, 졸업생의 취업률 7.0%, 사회봉사 12%의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어 학생들의 지식전달자이며 학풍을 대표하는 교수들이 좋은 학교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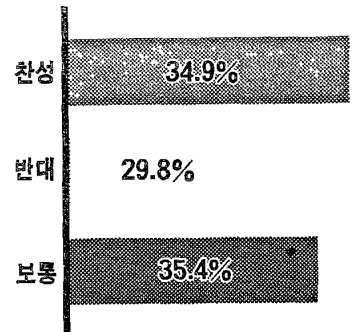
한편 본교입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49.0%, 불만족 한다는 응답 14.1%,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36.8%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감을 표명하고 있었으며, 특히 불교대학(76.5%), 사범대학(72.0%), 예술대학(60.0%)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학부제 실시: 학부제 실시에 대체로 긍정적인 신입생들은 학부제의 기본 취지를 적성에 따른 학과(전공)의 선택 또는 다양한 학문분야 습득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학부제의 취지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적성에 따른 학과의 선택과 다양한 학문 습득이라는 응답이 각각 42.4%와 36.4%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유사학문분야의 통합교육이나 학문영역간 상이성 해소라는 응답은 각각 9.1%와 4.3%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7.9%였다. 이를 보면 신입생들이 본교가 학부제를 도입하게 된 기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부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학부(계열)소속 학생과 학과소속 학생들간에 응답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학부(계열)소속 학생들의 경우는 45.6%가 적성에 따른 학과(전공)의 선택

택을, 학과소속 학생들은 34.1%가 다양한 학문분야 습득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본교가 학부제를 실시한 것에 대한 찬성도를 묻는 질문에는 34.9%가 찬성, 29.8%가 반대 35.4%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해 새로운 제도를 감안할때 중도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학부제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제 실시가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다는 질문에 41.4%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9.0%, 그저 그렇다 29.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부제 실시에 대한 찬성도(34.9%)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학부나 계열소속 학생들의 38.2%가 학부제에 찬성하고 있어 전체 평균이나 학과소속 학생들의 25.5%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학부제 실시가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있어서도 학부(계열)소속 학생들의 44.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학부제의 직접적인 대상자들에게서 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수록 학부제 정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학부제 실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면밀한 시행이 뒷받침 된

학부제 실시에 대한 찬성도



다면 전국 대학교중 선도적으로 도입한 본교의 학부제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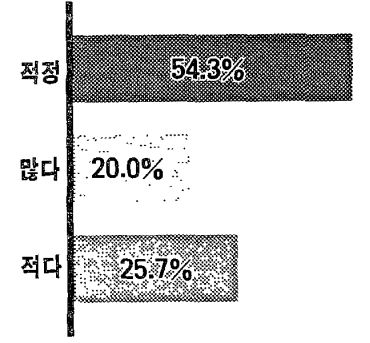
전공(학과)선택: 졸업학점 인지도 매우 높고 전공 최저이수학점에 대체로 적정 학부제 실시와 더불어 변경되는 졸업학점 인지도는 공과대 95.4%, 불교대 94.1%, 경상대 90.2%, 사회과학대 87.9%, 예술대 86.7%, 이과대와 사범대 각각 85.7%, 법과대와 생명자원과학대 각각 76.5%, 문과대 72.5% 등으로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 최저이수학점 인지도는 생명자원과학대 70.6%, 경상대 64.7%, 사회과학대 60.6%, 공과대 59.7%, 법과대 58.8%, 문과대 55.0%를 비롯해 불교대 25.0%, 이과대 29.4%, 사범대 22.0%, 예술대 20.0%로 졸업학점 인지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공 및 학과의 결정시기 및 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결정시기를 2학년 2학기 말로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59.6%였으며, 전공 및 학과결정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학생이 57.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전공 최저이수학점의 적정성에 대

최저이수학점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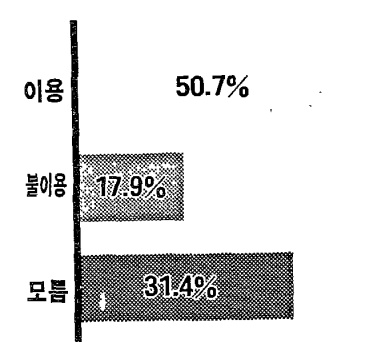


한 의견은 54.3%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많다 20.0%, 적다 25.7%로 적정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었으며, 전공필수과목 폐지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 전공필수과목을 존속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즉 78.1%가 전공필수과목을 존속시키거나 수를 줄이는 방안이 좋다는 주장을 펴려하고 있다. 전공(학과)결정의 고려사항을 보면 본인의 적성이라는 응답이 52.1%로 가장 많고 졸업 후 취업보장 23.3%, 학문적 관심 12.6% 흥미 12.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복수전공 및 전과제도: 복수전공에 대한 선호도 높아

신입생들의 55.4%는 고등학교 때의 희망학부나 학과에 진학했으며, 36.8%는 희망과 다른 학부나 학과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학부(계열 또는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58.5%, 불만족 33.7%

복수전공제 이용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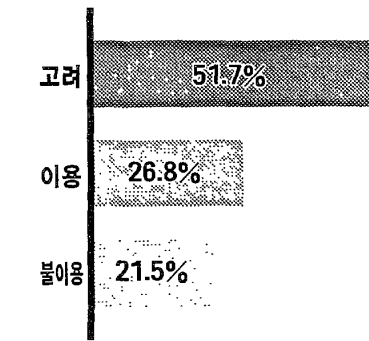


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는 인접학문분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문분야를 접할 수

있는 복수전공제도 이용 의사를 보면 이용하겠다는 50.7%, 이용하지 않겠다 17.9%, 잘 모르겠다 31.4%로 이용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제도의 기본 취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교대와 생명자원과학대에서 88.2%와 76.5%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학문과 진리탐구를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는 응답(각각 64.7%, 52.9%)이 높았던 대학에서 매우 높은 이용 의사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과(전부)제도를 이용하겠다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고, 전과(전부)하겠다 9.7%, 전과하지 않겠다 48.9%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계절학기: 계절학기 개설시기 확대 필요
계절학기 이용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는 의견이 51.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26.8%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 2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계절학기를 이용하겠다는 학생이 많지는 않으나 과반수를 넘는 고려해 보겠다는 학생들에 대한

계절학기 이용계획



홍보가 계절학기 운영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절학기 개설시기에 대해서는 55.9%가 여름학기 뿐만 아니라 겨울학기에도 개설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해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25.1%가 겨울학기, 19.0%가 여름학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절학기 개설시기를 현재의 여름학기에서 겨울학기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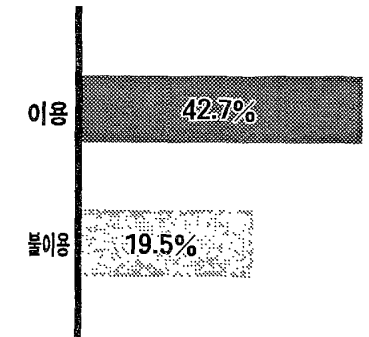
계절학기에 개설되기를 원하는 과목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었다. 즉, 교양·전공·특별강좌 모두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34.8%, 특별강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33.3%, 교양과목 16.3%, 전공과목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계절학기 이용 의사가 26.8%였음에도 개설시기나 개설과목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음을 볼 경우 홍보 여하에 따라서 계절학기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점취득 제도의 이용: 재수강제도에 어학연수 학생들에게 인기

관심있는 학문분야나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접근방법의 확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었고, 특히 재수강제도와 어학연수를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대학원 학점 선택특제도, 타대학 학점 인정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부 과정에서 대학원 학문과정을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과의 학문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대학원 학점 선택특제도의 이용에 대해서는 52.5%가 모르겠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28.8%가 이용하겠다고, 18.7%가 이용하지

재수강제도에 대한 신도



않겠다는 의견을 보여 계절학기를 이용하겠다는 의견보다 2.0%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타대학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폭넓게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타대학 학점 인정제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보면 23.2%가 이용하겠다고, 25.3%가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교대의 경우는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어학연수와 재수강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여타의 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43.3%가 어학연수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했으며 12.4%만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44.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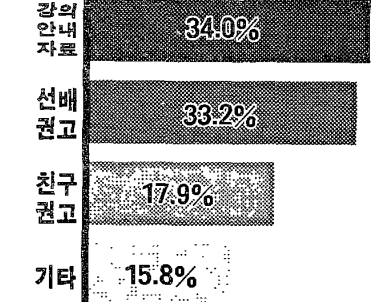
재수강제도의 이용에 대해서도 42.7%가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9.5%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교대(58.8%), 생명자원과학대(52.9%), 경상대(51.0%), 예술대(50.0%)에서는 어학연수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학교측의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판단된다.

기타 학사제도: 학업지도교수제에 대한 기대 수준 높아

신입생들의 교양과목 수강신청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전체적으로는 학교의 강의 안내자료 34.0%, 선포의 권고 33.2%,

교양과목 선택시 고려한 점



친구의 권고 17.9%, 조교의 지도 12.5%, 학업지도교수의 조언 3.3% 등이므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계열) 소속 학생의 경우 학교의 강의 안내자료 38.7%, 선포의 권고 28.5%, 친구의 권고 18.1%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학과소속 학생의 경우는 선포의 권고 45.5%, 강의 안내자료 21.6%, 조교의 지도 14.9% 등 선포나 학과조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학부제 실시와 더불어 특히 학부나 계열 학생들의 경우 선포나 조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학부 소속 학생에 대한 학사지도체제의 정비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된 학업지도교수제에 대한 신입생들의 기대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받고 싶은 내용도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6.9%가 학업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을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17.6%는 전공의 안내 및 선택에 대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학문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학업지도교수제는 학생들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학업에 대한 지도 뿐만 아니라 학습속도가 떨어지기 쉬운 신입생들의 전반적인 대학생활까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면담시간의 정례화 등 제도화·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은 입학 초임에도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종 신교육제도의 토대는 마련되었으며, 그 정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각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의견을 현실화·행동화 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제공: 학생생활연구소)

개교 9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것이 세계 정상의 벽지

백악관과 피카소 박물관을 장식한 동남벽지 그 명성 그 품격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동남벽지

• 콘체르토 • 앙상블 I • 앙상블 섀크 • 앙상블 칼리발로 • 앙상블 플러스(세일 섀크비지, 칼리발로)
• 한티지 II (최고급 섬유벽지) • 심포니 II (섬유, 초경, 지사벽지) • 디버지(BORDERS) • 수입벽지

■ 본사영업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14-3 동기빌딩 전화: 02)548-6237, 02)516-6848-9 ■ 공장: 경기도 안산시 원서동 727-8 전화: 0346)484-6231-4 ■ 영업소: 서울: 강남영업소: 546-3188 남서울 영업소: 599-3211, 강동영업소: 415-6263, 강북영업소: 966-1470, 서부영업소: 376-2296, 동부영업소: 3436-4048, 구로영업소: 851-0813, 부산영업소: 051)626-5566-7, 대구영업소: 053)424-5477, 인천영업소: 032)863-3527, 수원영업소: 0331)258-2570, 안산영업소: 0346)86-6007, 포항영업소: 0562)727-1110, 전라영업소: 0417)551-3550, 전북영업소: 0562)252-7559, 울산영업소: 052)67-0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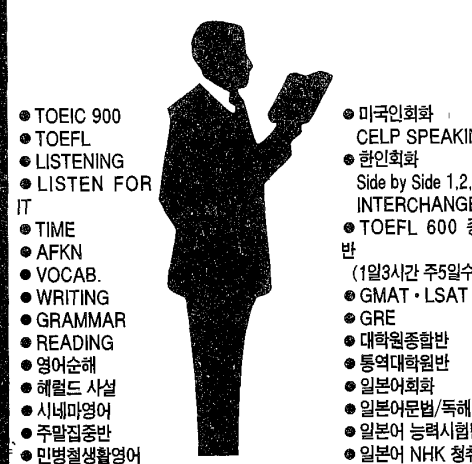
제5회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저희 국민은행에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학(원)생 여러분의 우수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폐기남치는 짧은 지정으로 도전하십시오.

- 1. 논제(디제)중택일**
 - 제국시대와 은행의 수직적계급과 발전
 -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가계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은행의 고액잔액주주 제도방안
 -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인터넷 활용방안
- 2. 시상**
 - 상금
 - 최우수상(1명) 300만원과 상패
 - 우수상(2명) 각 150만원과 상패
 - 가 격(5명) 각 60만원과 상패
 - ※우등자 전원에게 5만원 상당액의 기념품을 증정함
 - 시상일시와 장소 추후 통보함
- 3. 응모요령**
 - 응모자격: 전국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분량: WORD PROCESSOR로 A4용지 30매 내외, A4용지 3매내외의 요약 별도 첨부
 - 논문제출기간: 1996.8.1~1996.8.31
- 4. 당선과 발표** 1996년 10월말 예정 (개별통보 및 경계신문에 게재)
 - 1인당 응모편수 및 2인이상 공동응모 제한없음
 - 제출처: 우편번호 100-70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중앙회관 논문현상공모 담당자 앞
- 5. 특전**
 -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가 국민은행 입행을 원할 경우 특별한 결정사유가 없는 한 채용시 우대
- 6. 유의사항**
 - 논문제출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재학중명서 1부 첨부
 -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음
 - 당선자의 저작권은 당행 소유임
 - 응모작이 도용 또는 모방으로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특히 당선작으로 확정된 후 위의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선취소 조치함
 - 기타 사항은 논문현상공모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됨 (☎ 317-2258, 2604)

· SINCE 1961 ·

36년 전통의 시사영어학원은 최고만을 추구합니다.



●새벽·오전·주5일 ●저녁·주3일 90분강의

세계화의 도우미 시사영어학원
종로2가 종로서적 빌 TEL:734-2442

국민은행

◆제4기 한총련 출범식

백만청춘 태운 '한총련 4호' 힘차게 출항 선언

활성화된 부문제열 행사·문화공연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시

전 아 제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의장=정명기·전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출범식을 알리는 전아제가 지난 23일 전국 2백개 대학 4만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그 장엄한 막을 올렸다.

"전·대·협·한·총·련·10·년"을 외치는 4만의 합성으로 뜨겁게 시작한 전아제는 박병연 서총련 의장(연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신화해 간 6명의 열사를 기리는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해방이후부터 전대협까지의 역사를 담은 아이들의 춤, 꼭두각시춤, 민중들의 춤과 윤금씨씨의 이야기를 담은 집체극이 뒤를 이었다.

이인영 전대협 1기 의장부터 오영식, 임종석, 송갑석, 김현준, 정태홍 의장이 참석해 전대협 한총련 10년의 역사를 기렸으며, 새내기 공연단과 함께 '처음처럼'의 노래에 맞춘 한관 몸짓을 보여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총련 중앙위원들은 "전대협·한총련은 10년동안 끊임없이 투쟁해 왔고 앞으로도 민족해방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내세웠고,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유병문(본교 총학생회장)은 "시민적 조국에 사는 이들은 자유로울 수 없기에 미제 축출 김영삼 타도를 통해 자주의 시대, 승리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힘차게 외치며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이에 뒤이어 제4기 한총련 정명기 의장은 "전대협·한총련 10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하며 "백만청춘은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총련의 단결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행사로 '우리는 하나'라는 대동제 한마당이 펼쳐져, 전아제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는 흥겨운 한마당을 가진 후 각자 숙소로 돌아갔다.

학자주·조동위 출범식

저녁 9시경부터 여는마당을 시작으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조국통일위원회, 한총련 본 출범식이 열렸다.

여는마당은 최태진 남총련 의장(조선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은 "전대협·한총련 10년의 역사는 개혁의 역사였다"고 말하면서 "전국연합과 한총련은 더욱 강고한 연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범청학원 축하편지낭독과 중앙상임위원 소개로 이어진 여는 마당에 정명기 의장의 부모님이 참석해 "자랑스럽다"며 "뜻하는 바를 이루기 바라며 뒤에서 뒷바라지라도 잘 하겠다"고 말해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기도 했다.

뒤이어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김종호·동아대 부총학생회장 이하 학자주)의 출범식이 새벽 1시에 진행되었다. 학자주 투쟁 모범상에 성신여대, 경원대, 연세대, 상지전문대가 각각 선정되었으며 그 열기는 의정총합식으로 이어졌다.

김종호 학자주 위원장은 "조국의 교육은 풍전등화와 다를바 없으며 지금 대학들은 '개인의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팔팔한 학원자주화를 향해 매진하는 것기에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학자주 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학자주 출범식에 이어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유병문·본교총학생회장 이하 조동위)의 출범식이 최태진 남총련 의장의 사회로 펼쳐졌다. 6기 조동위 이원구위원장은 "7기 출범을 축하하며 7천만 겨레애원이 백만학도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각인해야 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본교 학생들이 준비한 연등의 길을 당당히 가로질러 의장으로 올랐던 유병문

조동위위원장은 "분단은 영원할 수 없으며 이제는 분단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분단세력, 반통일 통일조국 건설하자"고 통일외지를 밝혔다.

출범식 본마당

"열사의 외침 백만의 가슴을 이어, 10년의 애국단심 민족의 희망이 되고 자주통일의 새세기를 개척하라"는 가치아래 한총련 제4기 출범식 본마당 시간이 많이 늦어져 25일 새벽 2시경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권의 허구적인 정책을 백만청년이 힘을 모아 통일 단결하여 쫓고 가아한다'는 내용의 문예패 공연과 '우리가 보내야 했던 열사를 기리는 마음'을 담은 문예패의 목소리 공연으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또한 '전대협·한총련 10년의 감동적 않은 역사'에 대한 공연도 학생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사람도 병에도 이롭도 남김없이 동지가, 한총련 전군가, 전대협 전군가를 부르며 의장이 입장을 할 때마다 백만의 파도가 천지를 뒤덮으며 출항을 선언하는 듯했다.

'한총련 의장을 필두로 백만청년이 김영삼 정권 타도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

자, 가자, 한총련으로'의 내용으로 한총련 문예단과 새내기 문예단이 집단적으로 공연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의장으로 올랐던 정명기 의장은 "우리 백만 학도는 김영삼정권 타도 투쟁에 매진해야 하고, 투쟁대열에는 한총련의장이 반드시 선두에 서겠다"며 "제4기 한총련은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김영삼정권을 쫓아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단결하는 것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뜻을 수 있다"며 "희망이 있는 투쟁을 아릅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뒤이어 중앙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정명기 의장이 형서를 써서 투쟁을 결의하는 엄숙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애국의 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정명기 의장의 사발식이 진행될 때 전복대에 모인 4만의 학우들은 조용한 가운데 의장에 게 많은 지지와 호응을 보였다.

사발식 이후 머리머리를 묶은 정명기 의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김영삼 정권타도 △대선자금공개 △5·18 완전해결 △국가보안법철폐 △교육재정 확보 △조국통일 등을 다시한번 다짐했다.

따라서 출범식은 의장을 올릴한다는 들뜬 분위기 보다는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김영삼 타도 투쟁의 결의를 밝히는 장

특별취재반

송선영 사회부장
김희동 기자
김기영 기자
이성웅 기자
심미선 기자
김경미 기자
최정식 기자
신유현 기자
조선희 기자
배주영 기자
이해경 기자

이되어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끝으로 무대 왼쪽에 마련된 '한총련'글씨에 점화를 함으로써 한총련 본 출범식을 막을 내렸다.

결의대회

출범식 마지막 날인 25일, 출범식에 참가한 4만여명의 학생들은 대선자금 공개와 5·18학살자 완전처벌,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한총련 투쟁본부 발족식'을 갖고 투쟁결의를 한 뒤 시민학생 한마당을 치루기 위해 시청앞으로 향했다.

학생의 대열은 11시부터 시내를 향해 출발했으나 사람이 워낙 많아 대운동장을 빠져나가는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전복대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학생들은 춤과 노래와 함께 거리선전전을 벌여 문화한마당을 방불케 했으며 전주시민과 한데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출범식을 마친 학생은 서울로 올라와 연세대에서 하루 지낸 뒤 26일 종로와 대학로 등지에서 '미국반대·김영삼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많은 학생이 연행되었다.

취재나루

세계지도

○...한총련 출범식에 난데없는 불장난(?)이 여기저기서 있었다고. 알아보니, 밤늦게 출범식의 본 행사가 한창 중일때 추위를 느낀 학우들은 배포된 열사들의 전단을 끌어모아 불을 피웠다는데.

그것도 행사는 뒷전인 채 불길을 보고 모여든 학우들도 있어.

이를 지켜본 회전문대자 란 "불장난한 사람 다 모으면, 내일아침 세계지도(?)는 나을걸"

두개은 철판

○...전복대 교정에 웅크린 몰수족이 등장했다는데.

살펴보니, 한총련 출범행사가 밤세워 치러진 탓인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리를 펴고 누운 학우들이 있는지라 더구나, 보도에 버젓이 누워있는 학우들은 온 몸을 철판(?)으로 무장한듯이 보이는데.

이에 분개한 한 학우 "기냥 밟아(?) 버릴까 보다!!"

백만장사문

○...한총련 출범식 행사장에서도 돈은 빠지지 않는다(?)

무슨말인즉, 행사장인 전복대 곳곳에 마련된 자판기인 신문·책자파워가 모두 판매되고 있다고 거가다 원물가에 +α가 된 물건들이 학우들의 필요에 의해 소모되고 뒤에서 아주머니들은 돈을 세고 있다고 하니.

이에 한학우 왈.

"백만학우 모이니 백만 장사꾼도 모이네"

유종의 미

○...한총련 출범식이 열리는 전복대 학교 곳곳에 선전물이 가득 붙여있어 참가한 학생들이 그 준비성에 감탄했는데.

둘째날 바람이 불자 대자보들은 떼어지고 너털너털하게 돌아다니거나 바람에 실려 다니다기도 하는 등.

또 군데 군데 떨어져 떨어져 버려 대자보를 읽던 학생들 어리둥절하기도 출범식을 여느다 경신 없었지만 관리까지 잘해야 금상첨화가 아닐까!

열린강좌

'96열린강좌 청년마당'이 24일 오전에 전복대 교정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다양한 내용의 강연회와 문예공연, 결의대회가 복합적으로 펼쳐졌으며 총 13개의 강좌가 마련돼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긴장고조 정쟁적응에 관해 알아보고 4차회담제,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김종민(서울연합 자동위 위원장)씨가 강의했다.

열사정신 계승

강경대, 박승희, 권희정 열사의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그들의 삶에 대해 들어보았다. 또한 각 학교에서 준비한 추모공연이 펼쳐졌으며, '열사정신 계승'에 대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한미군법죄와 한미행정협정

미국의 한국주둔 이후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범죄상황을 살펴보고 한미행정협정개결, 주한미군 철수의 정당성에 대해 조재학(주한미군 법죄근거 대책본부)씨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학원자주화

상반기 학원자주화 투쟁을 평가해보고, 교육재정확보와 교육악법 철폐에 대해 청년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래운동 희망찾기

꽃다지, 희망새, 노래이야기, 조국과 청춘의 대요와 윤민석씨가 청년학생 노래운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 후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월에서 통일로

1980년대 미술운동들 중심으로 남북한 현대미술 흐름을 알아보고 분단의 역사와 통일을 향한 민족운동사에 대해 이태호교수(전남대 미술교육학과)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청년학생과 민중연대

통신의 재발목점반대와 통신문권 수호를 위한 투쟁의 중요성과 의의를 한국통신노동자와 공유하고, 청년학생들의 민중성과 계급성을 고취하고 힘찬 민중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문화공연 총평



10년 역사담은 다채로운 행사개최 '무대따로 학생따로' 탈피못해 아쉬워

민주정부 수립과 반미타도라는 가치아래 "전·대·협·한·총·련·10·년"이라는 구호로 백만 청춘을 태운 제4기 한총련 출항을 선언했다.

제4기 한총련은 지난 87년 전대협 출범 이후 그 정신을 이어 10년동안 민족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따라서 제4기 한총련 출범식을 치르는 지금 감회 또한 '색다른 것'이며 백만 학우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문화공연에서도 한총련 10년의 정신을 기린다는 기조로 출범식 기간 다채롭게 치러졌다.

전주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학생들과 함께 어울림한마당을 펼친 '내일을 여는 시작의 노래'행사는 학생들만의 축제에서 나지 않았던 것에서 벗어나 시민연대의 마당을 넓혀 함께 투쟁의 길을 걷는다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나, 시민들과 함께 공유 할 만한 노래와 시민들의 참여가 아직은 부족하였다.

이 행사에 이은 전아제에서는 열사들을 기리는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로 반미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외치는 전대협의 탄생을 그린 집체극, 전대협·한총련 역대의장과 시민연대의 어울림마당, 희망새의 공연, 대동 한마당

등으로 전대협·한총련 10년의 시대적 정신을 백만학우가 함께 인식, 계승하고자 했던 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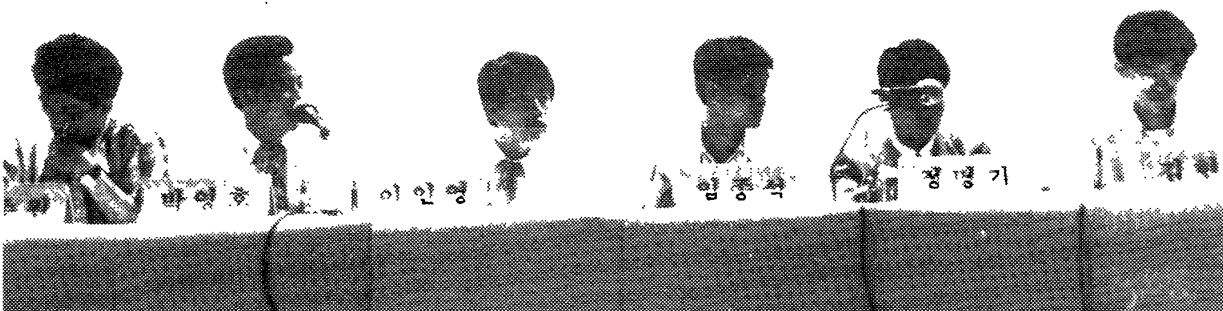
전아제·출범식 문화공연은 한총련 10년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도는 보이지 않았으며 무대와 학우들간의 하나된 연결고리가 없어 '무대따로'라는 예년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백만 청춘의 열린마당은 작년에 비해 강좌가 줄었으나 참가자들이 전대협·한총련 10년의 역사와 문화 사상들을 토론하고 느끼기에는 충분했으며, 부문계열 한마당은 노래패, 춤패, 동아리, 인문등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가져 청년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전복대 곳곳의 선전마당에서는 전대협, 한총련 10년을 기념하는 8만개의 캔조형물, 한총련바지를 모아 큰 장바지, 방으로 만든 사랑담을 선보여 학우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총련 10년을 맞아 기획행사가 많이 치러진 이번 출범식은 10년의 투쟁의 역사를 보여주어 백만학도의 호응을 얻었으나 한총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가 미흡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대협·한총련 10년 과제와 전망

학생운동, 자주·민주·통일의 구심체로 자리매김 해야 대중성 확보·단결된 모습이 중요한 문제



전대협·한총련 10년 맞이 기념 심포지움이 24일 오후 2시에 전복대 합동강당에서 개최되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청년·학생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인영(전대협1기 의장), 박영호(한총련 대의협력 위원장), 김중원(한총련 정책위원장), 임종석(전대협3기 의장), 정명기(한총련4기 의장)군의 참석한 가운데 발제·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현준 한총련 2기 의장의 사회로,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학생운동 10년을 총회하고 학생운동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대협 시기 가장 큰 성과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서 투쟁의 불을 당기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는데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대협으로의 단결'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통일운동의 새장을 열음으로써 대학인들은 물론 전국민의 전국적인 지지를 얻는다.

전대협 6년은 민주화·통일을 위한 '투쟁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대협은 날로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

한다. 그것이 바로 한총련으로의 전환이다.

93년 탄생한 한총련의 첫걸음은 거리에서의 투쟁뿐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학문영역에 대한 요구 또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 단과대 학생회장에게까지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라는 가치를 만들어낸 것은 그 고민의 결과를 대변해 준다.

94년 쌀수입 반대 투쟁에서 나왔던 '백만학도 총투표와 동맹휴업' 등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노력을 보인 것이며 부문제열의 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을 지니고 있다.

한총련의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구현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한총련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할 과학성회의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단결하지 못하는 일부의 모습도 문제가 된다. 그간 학생운동의 내부에서는 무수한 이견이 오고갔고 이를 지켜보던 많은 학생들에게는 이에 대한 불신이 쌓여갔다. 그러나 학생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견은 10여년의 역사속에 항상 존

재해 왔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전대협·한총련은 일단 합의한 것은 실천을 통해 검증하는 기풍을 지니게 됐다. 현시기의 이런 논쟁과 이견 역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고 이후에 나오는 오류와 한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하고 반성하는 것이 지금의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현실적인 대안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한총련이 외치는 구호와 과제들이 모두 옳다고 해도 대중들의 가슴과 닿는 확실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95년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던 5·18특별법 제정투쟁에서 보듯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투쟁의 방법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아직 한총련은 10년대기이다. 앞으로 또 10년, 혹은 그 10배 이상을 살아나기 할 어린아이인 것이다. 전대협·한총련의 의장들이 모여 학생운동 10년을 평가하고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한 이번 토론회가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어린이를 장성한 어른으로 키워내는 것은 꾸준히 한총련을 사랑하고 비판하며 지지하는 백만학도의 몫일 것이다.

② 영상문화의 새로운 전개

광통신시대, 인간일상 대변화 예고

결국 '휴머니즘에로의 회귀'를 그리워하게 될 것...

대 중 문 화 읽 기

기획 두번째로 '영상과 문학, 새로운 전개'였으나 본 주제가 광범위한 관계로 지면 한정상 필자와 상의하여 영상매체로 한정, 따라서 '영상문화의 새로운 전개'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이점 독자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글 쓰는 순서)

- ①한국 대중문화의 이해와 전망-김찬호(연세대 문화인류학 강사)
- ②영상문화의 새로운 전개-장영일(영화감독)
- ③대중문화시대의 TV읽기-손병우(순천향대 신학과교수)

영상문화의 새로운 전개

인류의 미래 예측서 '대변화 2000'에서 미국의 존 나이스비트와 패트릭 애버던은 '다가오는 21세기는 하나의 세계가 되며 하나의 문화권을 가지게 된다'고 예언했다.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은 '정보통신과 영상예술이 하나로 겹쳐 대추씨같은 모양으로 변한다'라는 독특한 이론을 제시했다. 21세기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이다. '경제전쟁'에서 '문화전쟁'으로 '글자통신'에서 '영상

정보'로 각국의 세계는 영상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뉴미디어, 꿈의 세계 실현

1993년 여름 전세계는 공통의 습격을 받고 놀란다. 영화 '쥬라기 공원'은 잃어버린 쥬라기 시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하여 시대를 역류시켰다. 이 영화를 연출한 스티븐 소더버그는 '이 영화는 공상과학이야기가 아니다. 과학에서 생길수있는 돌발성에 의해 충분히 예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여 전세계 영화인을 설득한 전설속으로 돌아 보았다.

그리고 이 한편의 영화가 갖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현대자동차 1백50만대를 넘어선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뉴미디어의 신기술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상상력을 동원 3차원의 영상으로 꿈의 세계를 실현시킨다. 컴퓨터 그래픽이 창조하는 새로운 세계는 국제 표준기구(ISO)의 정의를 빌리면 컴퓨터 그래픽은 물체의 형상, 성분, 색채 등 각종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이미지 변환작업을 통해 제3의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난 60년대 미국에서 건축설계나 도면에 사용되어오던 것이 이제는 영화, 광고, 컴퓨터아트, 시뮬레이션, 산업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꿈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표현 매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공상과학 영화 '터미네이터2'에서 악당 사이보그 'T1000'이 액체금속 상태에서 사람모습으로 변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표현 일것이다.

완벽한 컴퓨터 그래픽은 물체의 형태를 분석, 컴퓨터가 이해할수 있는 영상정보로 변화하는 기법인 '모델링'과 모델링한 대상을 인간이 느낄수 있도록 질감과 색채를 표현하는 기법인 '렌더링'이 동시에 발전할 때 가능하다.

정도의 디지털 혁명

이렇듯 앞으로의 시대는 광(光)통신의 시대이다. 빛을 타고 우주공간을 날라다니는 정보는 우리의 일상과 의식세계를 수없이 현실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며 꿈을 실현시킨다. 즉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광(光)섬유를 통해 문자, 음성, 영상, 정보 그리고 모든 자료가 멀티화 할 것이다.

멀티미디어가 우리의 생활속으로 깊게 들어 올것이다. 디지털 신호와 기호로 입력된 모든 표현 수단들이 통일화 된다.

정보의 디지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보고속도로인 광섬유는 미래의 일상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장에서 영상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VOD System, 지방에서 도시의 고급의료진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원격 화상 진료, 미국 영화사에서 서울의 어느극장에 위성통신을 쏘면 극장의 접시(파라볼라)안테나가 그것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위성시스템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

듯 정보통신영상은 위성, 케이블, 공중파라는 지역구분을 넘나들며 슈퍼하이웨이를 형성한다.

이는 곧 정보전쟁을 통해 시장경제의 변화도 예고하는 것이며 인간의 모든 일상에 대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등 컴퓨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영화나 교화집 TV(HDTV)를 보는것처럼 이동물체와 3차원의 자연현상등을 생생하게 표현해낼 정도로 두분야의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

이런 신기술은 고부가가치의 경제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뉴미디어를 통한 신기술은 인간의 상상의 가상세계에서 한 부분에 대한 상상의 집약인 테마파크까지 또 일상의 모든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실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영상테크노피아는 재택근무, 주문형비디오, 화상회의, 전자투표등 미래세계에 대한 편리한 정보통신분야에서 꿈을 이룬다.

인간의 존재 확인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만이 인간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의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호기심'과 '상상력'은 다시 자연환경을 통해 현실적 가치세계의 존귀함과 편으로 글쓰기라는 기본적인 형태로 인간회복과 대화를 통한 휴머니즘을 그리워하며 과거와 미래를 날라다니는 것이 미래환경에 대한 가장 큰 의미의 메시지 일 것이다.

장영일

(영화감독)

장소·시간) △형식의 유형 △서사화 △회화적 연속성의 수단 등이다.

3부는 회화 발전사에 관한 텍스트와 그 중 중요한 원문을 발췌·개재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와 현대 독일 회화작품과 관련된 또 하나의 회화론이나 연극론이라는 명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극 개론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책은 동시에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과 프랑스 고전극의 작가들의 작품을 다룬으로써 세계성을 획득하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 이 책은 연극 학도들에게 한국 연극과 회화 작품을 사회·역사적 차원에서 재조명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고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회화를 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극은 시민사회와 떨어져 있는 예술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이 반

(충남대 문과대 교수·극작가)

달 하나 천 경에

무가(無價) 보배를 찾아쓰자



일이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대가를 성취하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중생이 여래공덕을 본시 갖추고 있으나, 이는 모든 생명이 부처님과 조금도 닮지 않은 온전한 대자유 대평화 대지혜의 공덕을 갖추고 있건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를 한정하고, 제가 하는 일에 구속되어 조금의 자유도 향유하지 못하면서, 한없는 고통을 받는것을 여래께서 크게 슬퍼하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본래 온전한 공덕을 지니고 있음은 부처님이 증언하신 것이며, 또한 동서의 성인들과 큰 철인들이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 간단하다. 범부의 소견에 따르면 제자신의 일체생활이 조건속에 한정되어 있으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것이 결정되어 있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느끼는 것도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다. 삶의 길이나 죽음의 길도 결국은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천하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제가 싫으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요,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한숨을 쉬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 모든 조적, 어떤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참생명을 우리 모두가 본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인 것이다. 이런 보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얻어도 그만 잃어도 그만인 것 때문에 한없이 괴로워 하는 것 이것이 진실로 아리석은 일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그 근원을 추구해 보면 결국 참생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데 귀착된다. 이 열등감때문에 공연이 헛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편하게 한다.

바로 열마전이 부처님 오신날이 었다. 호화로운 잔치 분위기도 그리 나팔짓만은 아니었지만 여래께서 우리에게 정갈 깨우쳐주교자한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음미해 보는일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김 항 배 문과대 철학과 교수

서평

하인즈가이거와
헤르만 하르만
(임효일 역)

드라마작품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인식

대학에서 '회화론'을 강의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삼대 비극작가의 작품을 보거나 읽고,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작품 중의 하나인 쏘포클레스의 '오이디프스 왕'을 모델로 '비극식 작법(시학)' 강의

고대 그리스·현대 독일 작품과

연관된 또다른 연극론

드라마연구, 작품생성·공연 시대 상황과 연계 조명해야

노트를 만들어 보다는 요지였다. 답론은 다분히 작가와 비평가의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에 감탄하면서 진행되었다.

이같은 시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연극인들이 정치 상황으로부터 물려받은 공통의 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인즈 가이거와 헤르만 하르만 이 지은 '드라마 작품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 인식'(원제: Aspekte des Drama 임효일 역·지성의 생 간행)이라는 책은 그런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또 하나의 시각을 갖게 한다.

드라마는 시와 소설과 달리 처음부터 극장이라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곳에 모여드는 관객을 전제로 성립되는 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작품이 태어나고 공연된 시대의 사회·역사적 측면과 연결되어 조망해야 한다는 입장이 이 책 저자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태도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들은 작가의 작품이나 연극론을 사회의 한 요소로 취급하지 않는다. 정치·경제·종교 등 여러 요소 중 연극이나 연극인들이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할 때의 국가나 시대를 선택해서 논리를 전개한다.

제1부 회화와 연극과의 관계에서 저자들은 △고대비극과 △시인비극 △서사극을 선택한다. 고대비극에서 그리스의 삼대 비극작가의 작품과 플리우스의 정치제도, 아테네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과 연관시킨다. 시민 비극에서는 당시 독일 봉건 세력과 신종 시민 계급과의 관계, 특히 레싱의 '햄브르그 연극론'과 그의 작품들을 분석한다. 우리는 레싱이 햄브르그 연극론에서 카타르티스를 '정화'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레싱의 '정화'는 다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문다고 이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책은 '정화'를 사회·윤리적 차원으로 확장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2부 회화의 구성 요소도 새로운 시각을 지니고 있다. 권의상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면 및 연극 텍스트로서의 회화 △줄거리 유형 △줄거리 구성(막·장·등장) △무대 형식 △삼일치의 법칙(줄거리·

문학단신



◇물머리는 도시...김용철 한국문인협회 이사가 세번째 창작집 '물머리는 도시'를 출간했다.

김이사는 본교 국어국문학과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뒤 현재 본교 법인사무처 사업부장을 지내고 있으며 1985년 두번째 창작집을 펴낸 후 여러문예지에 발표한 작품 중 '94년 제8회 동국문학상을 수상한 중편 '오르막길'을 포함 10편을 선정해 이책에 수록했다.

'겨울편지' '환상의 빛'에 이은 이번 창작집은 집문당에서 출간, 가격은 7천원.

이제 노트북은 화질입니다 - 효성 멀티미디어 노트북PC 네오제트

노트북으로 이렇게 생생한 화면을 즐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실감영상. 저는 효성 노트북 PC로 외국의 CF 자료를 생생하게 고화질로 받아봅니다.

CF 감상 - 은종복

노트북에 멀티미디어 기능은 기본

이제, 화질로 승부한다

효성 멀티미디어 노트북 PC

화질이 생생하다. 잔상이 사라졌다.

- ▶ 4배속 CD-ROM으로 빠르고 생생한 화면
- ▶ 2MB VIDEO RAM의 풍부한 색상표현으로 더욱 선명한 화질
- ▶ 10.4" TFT LCD로 상하 좌우 어디서나 또렷한 화면
- ▶ MPEG채움으로 영화, VIDEO 감상

멀티미디어PC의 새장을 열어간다.

- ▶ 국내최초 컴퓨터 전문생산공장 설립.
- ▶ 국내최초 노트북 PC생산.

제로 잡기

- CPU 선택 2.0V(400MHz)로 절전기능까지!
- 10A 적외선 무선송신장치로 자료의 무선 송수신!
- 터파이드 마우스로 더욱 편리해진 마우스 조작!

CPU	RAM	VRAM	CD	FDD	Sound
100MHz	8MB	2MB	4배속	3.5"	16bit

효성컴퓨터

전문대리점 개설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TEL: 707-7631~4

총대, 정기 대의원 총회

상반기 사업평가 보고 총학생회칙 개정 논의

총대의원회(의장=천성국·کم공4)는 정기 대의원총회를 오는 28일 4시 동국관 L401에서 실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상반기 사업평가로 △에비조직감사 △문과대 정·부회장선거 △예술대·사회과학대 대의원장 선거 △새터 부정기 감사 △1학기 학생회비예산분배 결과가 보고된다.

또 총학생회칙 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실시된다.

총대의원회는 시대요구부응, 학내 민주주의 강화, 학생대표자와 대의원 총회의 역할구분을 회칙개정의 목표로 설정했다.

총대의원회 최이선(통계4)부의장은 "최근 몇년간 정국수 미달로 인해 성과 없는 총회가 되어왔다"며 "대의원들은 주인된 자세로 꼭 참가해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중앙기구간 예산분배는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의 거부로 지난 23일 중앙

위원으로 상정, △총학=20% △중앙=7.5% △총여=5.5% △총대=4%로 확정됐다.

확정된 분배비율은 최이선 예산

분배 소위원회 의장이 각 기구간 합의도출을 위해 최종 제시했던 안이다.

도서관 이용안내서 발간

배치도·열람·대출 절차 실어

중앙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학)은 "우리도서관"이라는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를 이번주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1만부 정도를 만들어 재학생에게 나눠줄 이번 책자에게는 각 층별 배치도와 자료 이용안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자료대출 및 열람, 도서관청 부분에서 재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도서관 한 관계자는 "안내 책자를 통해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발하며 "신입생들을 위한 안내책자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도서관증

북한 인권백서 등 4백33책

세계자유민주연맹과 이병동(농업경제학) 특임교수는 각 지난 3월13일, 19일 중앙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학)에 도서를 기증했다.

도서관은 세계자유민주연맹이 기증한 '북한인권 백서'등 1백56책과 이병동교수가 기증한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등 논문 1백83책, 동서 94책을 수증했다.

'미술창작의...'강연

작가 최열씨 초빙

미술학과(회장=조용수·4)는 오는 29일 학술문화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술창작의 주제인 작가 가질 의식'이란 주제로 작가 최열씨를 초빙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족작가 4·5인의 활동과 작품관' 및 '장작작가가 가질 작품관'에 대해 강연한다.

강연 이후에는 '작가의 통성과 작품관'에 대한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작가 최열씨는 '현실과 발언'의 동인이며 민족작가론을 연구·집필중에 있다.

인·적성검사

취업에 많은 도움 될듯

제8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남의화·경제4)는 오는 29일 동국관(L101)에서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한국교육개발원 협찬으로 치뤄지는 이번 검사는 다수의 회사에서 미리 적용하는 것이 목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이번 검사는 전학년 대상으로 붓꽃(구 만해서점)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비용은 사증의 절반 가격인 4천원이다.

단대 공간문제 '지지부진'

실험실습실 확보 등 주장

경상대 경상대학생회(회장=하재기·경제4)는 오는 28일 학자투요구사안에 대한 집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집거농성 75일째인 경상대는 지난 5월초 집거를 일부 철회했으나 지금까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집의서의 내용은 △새내기 자치공간확보 △전용강의실 2개 배정 △학강증원에 따른 교수의 채용 등이며, 지난 3월21일 보낸 집의서에 △분반한 전공과목에 교수 배치가 추가됐다.

한편 3월에 보낸 집의서의 학교측 답신은 아직 못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총련 반미집회

광주문제 완전해결·미군철수등 주장

'반미투쟁 집회'가 서남총련소속 동국대 등 4개대학 3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3시부터 송실대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는 중앙대 총학생회장 백주선(법4)군이 사회를 맡았고,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투쟁총화, 현대적 과제 △총체적 부패정권 김영삼정권 규탄발언 △광주항쟁 미국개입규탄과 미국의 공개사과 촉구발언 △용산 미군기지 환수에 대한 발언 △투쟁 출범문 낭독의 순서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각 발언자들의 발언내용은 공동적으로 △광주문제 완전해결 △미군철수 △김정경(무력2), 김근호(정보관리3), 최창규(정보관리3), 김일수(법학3)등의 뛰어난 골결정력으로, 작년 우승팀 홍익대를 예선서 이기고 올라온 총복대를 5대3으로 승리를 낙여줬다.

이번 승리의 요인에 대해 정창현 체육부장은 "공격수의 고른 활약과 수비수 박인화(경의4), 송영종(경제3), 윤근호(체교1)의 방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데 있다"고 밝혔다.

축구부 8강 진출

충북대 5대3으로 꺾고 조 1위로

본교 축구부(감독=최충덕)가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대강호로 고려, 충북대를 이기고 8강에 진출했다.

본교는 지난 25일 효창구장에서 열린 8강전입전에서 공격수 이상덕(체교2), 김정경(무력2), 김근호(정보관리3), 최창규(정보관리3), 김일수(법학3)등의 뛰어난 골결정력으로, 작년 우승팀 홍익대를 예선서 이기고 올라온 총복대를 5대3으로 승리를 낙여줬다.

이번 승리의 요인에 대해 정창현 체육부장은 "공격수의 고른 활약과 수비수 박인화(경의4), 송영종(경제3), 윤근호(체교1)의 방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데 있다"고 밝혔다.

아간강자 아간총학생회(회장=구장주)는 이번주 내로 2차 투쟁요구안을 학생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2차투쟁요구안은 학교측에서 내주기로 한 실험실습실 이과대와 공응인가에 대한 여부와 기자재 확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과대 문과대 학생회(회장=원진욱·사학4)는 지난 21일 명진관 앞에서 인문학부 자치공간확보를 위해 인문학부 새내기들을 구축으로 집회를 가졌다.

또 오는 29일 인문학부 자치공간 확보문제를 비롯 열악한 강의실 학회실 문제를 위한 제2차 문과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염병, 돌 등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인후 오후7시에 자진 해산했다.

생리대 자판기 설치

생활협동조합 설립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는 생리대 자판기 6대 구입을 결정했다. 자판기 관리, 운영은 생협에서 할 예정이며 자판기 설치 위치는 이번주 중에 확정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제11대 총학생회(회장=서정은·역교4)는 "자판기 중 1대는 전산원예, 나머지 5대는 학림관 1층, 도서관 2층, 명진관 1층, 동국관 3층, 학술문화관 여학생 휴게실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강호 고려대를 예선에서 이기고 2조1위로 예선투과해 상순세를 타고있는 본교는 오늘 2시 효창구장에서 전력이 비슷한 중앙대와 4강전입전을 갖는다.

이번 앞서 펼쳐진 경기의 전적은 다음과 같다.

△15일 동국대-선문대 7대2 승 △17일 동국대-교원대 6대0 승 △19일 동국대-경희대 1대1 무 △23일 동국대-고려대 2대1 승

한편,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애플맨다 윌리엄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이영민(경영3)선수가 아쉽게 준우승에 그쳐, 대표 선발에는 탈락했다.

선무장학회 구성

선무부 동문들이 지난 18일 '선무장학회'를 구성했다.

이 장학회는 선무동우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으며, 97학년도 1학기부터 선무부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선 1명에게 1백만 원을 지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학금 지급은 선무부 부원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봉사정신이 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장학회는 △회장=김세영(경제61졸)△부회장=구덕희(법66졸)△총무=윤진현(식공68졸) △위원=오병선(법66졸), 이창웅(식공67졸) 등문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장학기금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선무부는 '제4대 사범추대' 행사도 함께 가졌다. 사범은 선상규 학생 부처장으로 국기원 6단, 제32회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의 약력을 소유하고 있다.

학내공간 재배치

96학년도 1학기간 학내공사로 본교의 제반시설의 위치가 변동됐다.

본관 1층에 강의실 5실과 기계과 실험실 3실, 기자재실 1실이 새로 마련되고, 2층에는 구매과, 과학교, 사무실, 장학과, 비상계획과, 연구교류처가 배치된다.

또 동국관 44실, 교수회관 2층 12실, 원흥관 2, 3층 8실등 총회실의 연구실이 만들어지고, 원흥가든과 원흥관1층 도서관의 자리가 맞아파게 된다.

인환스님 초빙법회

고승초빙법회가 인환(선학)스님을 법사로 내달 4일 정각원에서 마련된다.

인환스님은 본교 불교학과를 64년에 졸업했으며, 일본 동경대에서 '신라불교의 계율사상'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후, 82년부터 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1백여편의 논문을 남겨 '음직이는 불교사전'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14년간 본교에서 후학을 양성해온 인환스님은 올 여름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학과소식

인도철학과 학과발전을 위한 '건설준비위원회'가 오는 29일 학생회실에서 열린다.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4학년들의 졸업작품전이 오는 31일까지, 학술문화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산업공학과 체육대회를 오는 29일 오전 10시, 만해광장에서 실시한다.

학·전·무·대

동국타임

○...지난 23일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하려는 학우 3백여명 출발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고.

악속했던 차가 두시간여 늦게 도착, 4시가 넘어서야 출발하게 된 것.

이제껏 한두시간씩 늦어졌던 전례를 알고있는 윤전수 아저씨가 일부터 늦게 왔다는 소문까지 들리는데,

이에 출발시간 맞추느라 수업빠먹고 기다리던 한 학우왕 "양치기소년 한계에 달하다"

단무지

○...요즘 보리수에서 식사를 하는 학생들은 고민이 크다는데,

떡볶이는 반도 익지 않은채 나오고 칼국수나 떡만두국은 너무 짜서 물을 타먹어야 할 정도라고.

더군다나 30여분이나 기다려서 받은 음식이 이 모양이니... 받아든 학생들마다 적잖이 흥분.

이에 한 학우 단무지만 되씹으며 외치기를 "아! 열 받아다"

상인축제

○...지난 20일 성년의 날, 장미, 케익, 향수가 갑자기 날개돋친 듯이 팔려 상인들이 큰 기쁨을 누렸다고.

성년의 날은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데 어찌 선물만 주고 받으려 출정대는 것으로 퇴색되어 버린 느낌.

본 회전무대자는 혹시 상인들의 축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에 한 미성년자가 말하길 "살기도 힘든 세상 함께 살아야죠"

스테레오

○...요즘 강의실에는 스테레오 현상이 유행이라고.

다들아니라 교수님이 출석확인할 때 한사람을 호명하면 대출을 부탁받은 이들이 여기저기서 부름(?)에 답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

어느 강의실은 있는 사람의 3배까지 출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니 잘하면 한사람이 7~8명까지도 소환하는 모양.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일인다역도 좋지만 팀웍이 맞아야 작품이 나오는 법"



그녀의 외침으로 세계가 깨어났다

남아프리카의 비인종적인 인종차별을

전세계에 고발한 나딘 고디머 —

한 여성의 용기어린 삶이 역사를 바꿨듯,

여대생 여러분의 잠재력 속에 무궁무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향한 여러분의

앞선 사고를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태평양은 여성의 꿈과 미래를

이어드립니다.

나딘 고디머(1923~)
남아프리카의 비인종적인
인종차별철폐에 대항하는
작품을 통해 인권을
변환을 고발한 백인국가
199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컬처렛(Culturette)이란?
여성문학 활동가들 동하는 일로,
21세기 새로운 여성문학을 창조하는
일차하는 여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2회 컬처렛 선발 태평양「여대생 논문」공모전

- 참가대상 · 전국 각 대학 재학생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 응모기간 · 96.10.21 ~ 10.31
- 응모주제 · 현대 가족속에서 여성의 역할 (태일)
 - 자녀 교육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 부부 관계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 혼수 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 효의 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 상가의 열거된 것 외에 가정이나 가족 속에서의 여성의 역할
- 응모방법
 - 분 량 · A4용지 20매내의 분량 (200자원고지 80매 분량) 워드프로에서 이용 작성 제출
 - 2장내의 논문요약과을 별첨
 - 논문원본 1부 및 사본 2부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96년10월현재) · 자기소개서 1부 (여권용사진부착) · 연락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시 상
 - 최우수상 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우 수 상 3명 -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
 - 장 령 상 5명 -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 입상자 발표
 - 1996년 12월 16일 개별통지
- 제출처
 -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75-2 성원빌딩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전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 수상자는 당사 입사지 우대
 - 수상자는 졸업때까지 매년1회 이상의 컬처렛 모임 초대
 - 수상자 전원에게 2박 3일 태평양 제주농장 견학
 - 전원 기념품 증정
 - 제출논문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되지 않아야 함.
 -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02-749-2388~9)
- 심사기준
 - 독창성, 논리성, 실용성

태평양

